

제2절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1.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창출
2.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3.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신성장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기반 구축
5. 지역경제 활력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

제2절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

1.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창출

1-1. 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강화

가.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 추진

전남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국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관리하는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를 추진했다.

일자리창출 목표관리제는 도 재정을 투입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일자리창출을 함께 이행토록 함으로써, 도 재정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일자리사업, 5억원 이상 재정사업, 출자출연기관 고유사업 등으로, 공공일자리의 고용현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일자리창출 내역을 근로주체별(청년, 여성, 일반), 근무형태별(상용, 임시)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지난 3년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고려,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에 크게 이바지 했다.

도는 2018년에도 일자리 목표를 10만 개로 설정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목표관리제 운영실적 】

(단위 : 개)

구분	2015	2016	2017
목표	85,720	90,166	96,093
실적	85,921	91,113	97,336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협력팀장 최동훈, 담당자 조승일

나.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시행

전남도는 2015년부터 ‘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 사업’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일자리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는 매년 10개 업체를 선정, 인증서·패·현판과 함께 고용환경개선 자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세무조사 유예, 운전자금 이자 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청년근속장려금 우선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 결과 ‘고용 ⇨ 도 지원 ⇨ 기업성장 ⇨ 일자리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도는 ‘일자리창출’이 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란 생각으로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협력팀장 최동훈, 담당자 조승일

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지원

전남도는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활용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순천시, 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TF를 구성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순천시 해룡면 대안리 일대에 조성중인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는 3D 영상,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 직업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직업체험관이다.

2016년 고용노동부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공모에서 순천시가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485억원(국비 240억원, 지방비 245억원)으로 연면적 12,000㎡,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도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교육 등 산업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청년일자리팀장 권용선, 담당자 한형선

라.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 추진

전남도는 지역의 핵심 일자리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고용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 년도(2016), 2차 년도(2017) 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통합 일자리 체계를 조성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일자리 자립형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3년 연속(2016~2018) 국비 확보 전국 1위(총 122억원), 2년 연속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대규모 일자리사업 운영 노하우와 역량을 기반으로 시군 동행 일자리사업,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등 자체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전라남도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용서비스를 통합·확대하고 일자리사업의 기획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청년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새로운 일자리 동력이 생기고, 타 지역 및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일자리 상생기반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고용혁신 프로젝트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일자리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토대로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창출팀장 나영수, 담당자 김민준

1-2. 전남형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확대

가. 산학협력 취업패키지사업 추진

전남도는 학교 교육 등을 마친 졸업자 위주의 일자리지원 정책을 학교 안으로 확대하고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중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 취업을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대학 안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을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6년 6개 대학·6개 과정에서 2018년 9개 대학·13개 과정으로 확대했으며, 참여 학생은 2016년 295명에서 2018년 602명으로 307명 증가했다. 대학별 교육과정은 목포대학교 3개 과정(조선해양, 글로벌비즈니스, 에너지·ICT), 순천대학교 2개 과정(청정바이오식품, 기능성 화학소재), 동신대학교 2개 과정(미래에너지, 문화관광),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1개 과정(플랜트 엔지니어링), 목포해양대 1개 과정(해양레저), 순천제일대학교 1개 과정(안전설비), 청암대학교 1개 과정(보건의료서비스), 목포가톨릭대학교 1개 과정(휴먼서비스) 및 목포과학대 1개 과정(해양레저·디자인 과정)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13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비로 2,720백만원(국비 1,170, 도비 1,170, 인재육성기금 120, 대학 260)을 투입할 계획이다.

과정 운영은 대학별로 2개 학과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학과를 개설하고 30~50개 가족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이수자가 가족 기업에 우선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대학교는 3~4학년, 전문대학은 1~2학년 위주로 40명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대학에서는 산업체 필요인력 및 교과반영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 중심형 정규학점 또는 비학점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며, 참여 학생은 직전 학기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고향 정착 희망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 2020년까지 20개 과정, 취업인원 1,000명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고용 디딤돌’ 역할을 통해 청년층을 지역에 안착시킴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청년일자리팀장 권용선, 담당자 최방주

나. 선취업 후진학 과정 확대

2015년도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 6,327명 중 취업자는 4,549명이며, 이중 도내 취업자는 2,883명으로 취업자의 도내 정착률은 63.4%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기업의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관련 희망-실제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지역 기업에 취업시킨 후 대학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선취업 후진학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목포대학교 및 참여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불산학융합지구 내 목포대학교 계약학과(조선시스템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조선해양분야 기업과 공동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선발·고용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운영한 조선시스템학과는 산업체 26개 기업, 특성화고 10여개 학교가 참여하여 특성화고 졸업생 90여명이 조선해양 관련기업에 취업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도와 기업에서 각각 대학등록금 50%, 25%를 지원받아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 전공 관련 교육을 4년간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내 목포대학교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를 신규 개설하여, 에너지밸리 내 기업과 공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청년일자리팀장 권용선, 담당자 한형선

다.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운영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는 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청년 구직자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면접 후 취업할 수 있는 one-stop 일자리 서비스이다.

도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도내에 소재한 기업 중 채용계획이 있는 2~3개의 구인기업을 선정하고 전남 소재 대학·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인력양성과정 및 각종 직업 훈련 교육생(수료생) 등 20~30명의 취업희망자를 모집하여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도는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9회를 운영하여 84개 기업에 274명이 취업했으며, 2018년에도 6회를 더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협력팀장 최동훈, 담당자 노은정

라. 전남형 청년인턴제 개선 운영(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전남도는 청년들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등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경우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2010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이 청년 취업에 크게 기여했으나, 청년들이 장기 근무하여 지역에 안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16년부터

는 인턴사업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대폭 개선하여 3년간 근무할 경우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청년과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1~3년간 각 연차별 200명씩 60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700만 원, 기업 500만 원(1년차 청년 150만 원, 기업 200만 원, 2년차 청년 150만 원, 기업 150만 원, 3년차 청년 400만 원, 기업 150만 원)을 지급한다.

앞으로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인력을 채용하고 청년들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기업에 취업해 미스매치 해소됨은 물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청년일자리팀장 권용선, 담당자 한형선**

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기관과 협약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고용부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기에너지·에너지ICT 등 10개 사업에 총 509명이 취업했다. 2018년에는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최대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산업체의 훈련수요 조사를

통해 확보한 수요를 기반으로 재직자 능력향상 및 신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공동 훈련센터 및 파트너 훈련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7년에는 공동 훈련센터 3개소, 파트너 훈련기관 11개소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해, 최종 2,343명(양성519명, 향상1,824명)의 훈련 성과를 냈다. 2018년에는 2,500명(양성100명, 향상2,4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창출팀장 나영수, 담당자 김민준

바.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

전남도는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 저하 및 청년 고용문제 개선을 위해 관광문화 테마거리,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푸른돌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15~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손쉽게 도전하여 창업에 대한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도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과 함께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 예비창업자의 사업 아이템 심사, 창업교육(70시간), 전문가 멘토링, 창업현장 투어 및 벤치마킹, 품평회 등을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 후 임차비, 재료비, 홍보비 등 점포당 최대 2천 5백만원 내외의 초기창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푸른돌 청년상인은 2016년 순천 옷장에 14개소의 집적화된 창업공간과 여수 등지의 개별창업 등 30명을 육성했으며, 2017년에는 목포 청춘향, 강진 사의재 저잣거리에 20명의 청년상인을 육성했다.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광, 문화, 예술, 먹거리 등과 결합한 청년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더욱 나은 청년 일자리창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청년일자리팀장 권용선, 담당자 최방주

사.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추진

전남도는 창업기업이 초기(3~7년차)에 직면하는 경영난관(데스밸리, Death Valley)을 극복하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했다.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창업 초기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 성장한계에 부딪힌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마케팅, 제품개발, 공정개선, 특허·인증, 홍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최대 9백만원 한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2016년 11개 기업, 2017년 12개 기업이 위 사업에 선정되어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및 고용이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5개 기업이 선정되어 기업별 지원금액을 1천 8백만원까지 상향 지원받음으로써 어려움에 부딪친 창업기업이 핵심역량과 시장성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청년일자리팀장 권용선, 담당자 한형선

아.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대책 수립 · 추진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일자리종합센터는 실장 1명, 직업상담사 5명으로 구성, 구인기업·구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상담·알선을 통해 전남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조직한 일자리 전담 센터이다.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온·오프라인 잡매칭데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등의 사업으로 도내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체제를 형성했다.

【 일자리센터 업무 실적 】

(단위 : 명, 개)

구 분	2015	2016	2017
상담, 알선	4,643	5,730	7,785
구직자	1,066	1,210	1,357
채용기업	805	710	1,012

2) 온오프라인 잡매칭데이 운영

“온오프라인 잡매칭데이(Job-Matching Day)”는 기존의 행사성 위주의 대규모 박람회에서 벗어나, 시간대별 사전·현장 참가자를 조정하여, 예년 행사와 달리 번잡함 없이 차분한 가운데 소규모이지만 내실 있는 행사를 진행하는 박람회이다.

전남도와 전남일자리종합센터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박람회로, 인력채용이 필요한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회(오프라인 8회, 온라인 3회) 진행하여 417개 기업에 641명이 취업했고, 2018년에는 5회(오프라인 3회,

온라인 2회) 추진 예정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협력팀장 최동훈, 담당자 노은정

자. 지역산업기반 청년 희망창업 생태계 구축

1)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전남도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사업화 공간 제공, 경영지도 등을 지원한다.

비즈니스센터는 개인 전용공간 24개, 공동 작업실 1개, 회의실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2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는 (예비)창업자가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통하여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

연도	센터수	입주기업수	고용인원수
2015	1	20	5
2016	1	20	5
2017	1	20	9

2) 대학 창업보육센터 지원

전남도는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 창업자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을 위해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순천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등 7개 대학에서 운영한다.

전남도는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억 8천 1백 만원을 지원했다.

각 지원비는 입주업체의 기술개발·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판로 및 마케팅·경영 컨설팅에 사용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과 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육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 】

연도	창업보육센터수	입주기업수	고용인원수	매출액(백만원)
2015	7	99	285	28,849
2016	7	94	308	29,762
2017	7	107	311	28,717

3)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 및 경진대회 개최

전남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매년 8개 대학 30개 동아리에 1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벤처동아리 지원을 통해 약 400명의 대학생이 사업화 아이템 발굴, 시제품 제작 등 예비창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창업정신을 고양하여 청년창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

또한, 대학 벤처동아리를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 9개 팀을 시상했으며, 우수 사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순천대 창업선도대학 육성

전남도는 창업지원 인프라 및 성과 등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의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15년 창업선도대학에 공모를 통해 순천대학교를 선정했다.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한 순천대학교는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창업기업에 마케팅과 자금 지원, 지정멘토 기술지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전략분야 지원, 사후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순천대학교를 창업거점기관으로 지속 육성하여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2017년 순천대 창업선도대학 성과 】

신규 창업	지재권 출원	매출액	신규고용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24명	32건	21,936백만원	39명	12개, 827명	4개, 58명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벤처창업지원팀장 이길용, 담당자 이동명

1-3.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가. 사회적기업 육성

전남도는 사회 공익 목적을 우선하여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2017년 예비사회적기업 31개를 신규 육성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71개 기업에 연인원 4,14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또한, 신제품 개발, 홍보·마케팅비 등 사업개발비를 63개 기업에 11억 4천 6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사회적기업 신규모델 발굴, 판로개척 등 18개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12개 법인·단체 등에 4억 2천만원을 지원했다.

2011년부터 추진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2017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까지 확대하여 총 36개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설 확충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2017년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1,354억원이며, 12월 말 기준 도내에는 93개의 사회적기업과 6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2018년에는 재정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행안부형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사회적경제팀장 오미경, 담당자 문광제

나. 마을기업 육성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

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2010년에 처음 도입했다.

전남도는 2017년에 전남형 예비 18개, 행안부형 신규 11개, 행안부형 2차년도 9개 등 총 38개 마을기업을 신규 선정하여 11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마을기업별 사업비는 전남형 예비 2천만원, 행안부형 신규 5천만원, 행안부형 2차년도 3천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또한,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사업 등을 통해 마을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마을기업 매출액은 172억원이며, 12월말 기준 도내에는 64개의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과 140개의 행안부형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사회적경제팀장 오미경, 담당자 송 미

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남도는 기존 마을기업 지원기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지원기관으로 이원화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을 전남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2015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남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판로지원, 성장단계별 컨설팅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98회(2,190명) 운영했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966회의 유선 및 방문상담, 경영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2018년에는 기획행정팀, 마을기업팀, 사회적기업팀, 협동조합팀으로 구성된 전남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조직을 기획협력팀, 행정지원팀, 판로지원팀, 기업지원팀으로 기능 중심 재편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 유통기업과의 MOU 체결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사회적경제팀장 오미경, 담당자 문광제

라.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 운용

전남도는 일반 기업보다 신용·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을 2015년 2월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전용 신용보증상품은 전남도가 매년 3억원을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인 연 30억원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보증한다. 2017년 12월말까지 149개 기업에 67억 7천 3백만원을 신용보증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줬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사회적경제팀장 오미경, 담당자 문광제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운용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자립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에 앞장서 나가도록 공공구매 공시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7년 기관별 공공구매 실적 및 2018년 구매계획을 파악하여 도 누리집에 공시하게 되며, 2018년 구매실적 또한 분기별로 파악하여

공시할 예정이다.

【 2017년 공공구매 실적 및 2018년 공공구매 계획 】

2017년 구매실적	2018년 목표액
2,190백만 원	3,841백만 원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사회적경제팀장 오미경, 담당자 송 미

1-4. 사회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주민이다.

전남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87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서민 생계 지원 및 고용 안정 등을 도모했다. 2017년에는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자원 활용, 지역기업 연계, 서민 생활 지원, 지역 공간 개선 등 4대 유형 8개 사업을 추진해, 104개 사업장에서 8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환경 정비 등 단순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마을공방 등 공동작업장을 육성하고 마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정책팀장 정창모, 담당자 이규현

나. 공공근로 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안사업을 연계 시행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분들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6,38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2017년에는 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 4대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 관광지 등 쓰레기 수거,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농촌일손돕기 지원 등 982개 사업장에서 2,69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

행정정보화사업, 사회복지향상사업, 실태조사사업 등과 같은 청년 대상 적합사업을 발굴하여 청년층이 전공을 살리면서 직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도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와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성·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정책팀장 정창모, 담당자 이규현**

다.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

전남도는 중장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 수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실시하는 제도이다.

대상기업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으로, 만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업에 매달 50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고, 취업자는 매달 30만원씩 10개월 동안 취업 장려금을 받는다.

전남도는 각 시·군을 통해 125명의 참여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여 40~50대 조기 퇴직자와 은퇴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중장년층 고용촉진을 위해 중장년층 지원시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일자리정책지원관 최형열, 일자리창출팀장 나영수, 담당자 박수진

2.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2-1. 민선6기 기업 1천개 유치

가.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유치

전남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특히 민선6기 1,000개 기업 유치를 위해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및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최근 건설 경기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 냉각 등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권역별·산업별 지역 투자여건에 맞는 3천 개의 잠재 기업을 발굴하여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투자유치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투자유치 실적 평가 및 투자유치의 날 운영 등 투자유치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말까지 1,054개 기업, 15조 8천 1백억원의 투자유치와 5만 9천 6백여 명의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빛가람 에너지밸리에는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LG CNS, GE코리아, 보성파워텍이 이전하는 등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310개 에너지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민선6기 투자협약 체결 현황 】

구 분	합 계	2014.7월~	2015	2016	2017	2018.4월
업체수(개)	1,054	124	271	279	283	97
투자금액(억원)	158,117	18,891	59,209	29,424	33,450	17,143
고용인원(명)	59,601	8,212	13,613	9,113	25,397	3,266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투자기획팀장 홍양현, 담당자 최의진, 김래선

나.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최근 들어 도내 시군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산업단지 공급과잉,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남도 내에는 32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다. 이중 목포 대양산업단지를 비롯한 6개 일반산업단지(목포 대양산단 37.2%, 목포 세라믹산단 22.6%, 나주 혁신산단 59.4%, 담양산단 20.3%, 장흥 바이오산단 28.1%, 강진산단 14.6%)가 낮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도에서는 분양률 50%미만 일반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단지별 TF팀을 구성·운영(6개팀, 22명)하는 등 해당 시군과 함께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2015년 3월에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분양률 50% 미만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입지 보조금은 분양가의 30%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시설 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건물임대 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산업단지 명칭이 특정 업종만이 입주가능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강진 환경산업단지’의 명칭을 2016년 12월 ‘강진산업단지’로 변경하고, ‘장흥 바이오산업단지’ 명칭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목포 대양산업단지를 비롯한 분양률 50% 미만 6개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을 완화하고 확대했다.

아울러 향우기업,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했다. 특히 지난 2017년 9월에는 수도권 중소기업 CEO 5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이때 분양률 50% 미만 산업단지 소재 6개 시군에서도 참여하여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도 진행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분양률이 낮은 6개 산업단지의 2018년 4월말 현재 평균 분양률은 40.3%로 2016년 말 22.5%보다 17.8%p 상승했다.

앞으로도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과 함께 수도권 및 부경권 등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강화하는 등 2020년까지 분양률 50% 이상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기업유치팀장 신상식, 담당자 정병현

다.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도내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에 큰 성과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비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종류로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교육보조금, 건물임대보증금이 있으며, 민선6기에 266개 기업, 629억원을 지원했다.

도비보조금과 별도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조선업체를 위한 조선기자재 사업 다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으로, 민선6기에 31개 기업 417억원(국비 335억원 포함)을 지원했다.

도는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전담을 만들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매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투자기획팀장 홍양현, 담당자 박상은, 김래선

라. 투자기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투자유치 기업 실현율 제고를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별로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하여 부지 매입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PM 전문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공장등록 후 1년 미만 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주 1회 문자, 월 1회 전화, 분기 1회 방문활동을 통해 투자실현을 독려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기업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내 투자기업의 사기 진작 및 정서적 친밀도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공장 착공 후 3년 이내의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기(氣) 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 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기공식·준공식·창립 기념일 등을 ‘기업 기(氣) 살리기 날’로 지정하여 행사비, 도립 국악단 축하공연, 표지석 설치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다솜영농조합법인 등 6개 기업에 30백만원, 2017년에는 보성파워텍 등 5개 기업에 24백만원, 2018년 상반기에는 빛그린식품 등 2개 기업에 10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기업 기(氣) 살리기 날’을 개최하여 전남도 투자환경 이미지 제고와 잠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투자기획팀장 홍양현, 담당자 김래선
기업유치팀장 신상식, 담당자 한상현

2-2.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20여개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401,142천불 도착액은 284,472천불의 외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고희수성 수지를 생산하는 일본 스미토모세이카가 2차례에 걸쳐 1,800억원,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와 롯데케미칼의 합작사인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의 1,200억원 투자, 세계 화학기업 1위인 독일 바스프가 고기능성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전자케미칼에 930억원 등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일본 스미토모세이카 투자협약식(2017. 11. /오사카)】

한국전력,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추진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스웨덴 ABB, 미국 GE 등 글로벌 에너지산업 기업과도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일본의 글로벌 콘텐츠 개발 기업 폴투윈홀딩스의 자회사인 폴투윈 코리아를 나주혁신클러스터에, 중국 분유가공기업인 HAM을 광양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등 외국인투자업종 다각화에도 노력했다.

가. 유럽·미주 IR 활동

2014년 11월에 이탈리아와 독일을 방문해 정밀화학 및 튜닝산업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이낙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은

2015년 5월 이탈리아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와 독일 자동차 튜닝기업 SKN 등과 1,86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산업부, 코트라와 공동으로 자동차 부품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파리에서 열린 '2015 EQIP AUTO' 박람회에 참가해 10개 잠재투자 기업을 발굴했다.



【롯데베르살리스 투자협약&박람회 기업유치설명회(2015.5.)】

2016년 4월 독일, 프랑스를 방문해 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인 Siemens,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기업인 Leclanche 등 에너지 신산업 및 레저보트 관련 독일의 Bavaria Yachts, Drettmann, 이탈리아 Azimut Benetti 등 5개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6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OCMi-OTG SPA, ROXTEC ITALIA 등 에너지 신산업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으며,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Power-Gen Europe 2016 전시회를 참가하여 5개 잠재투자 기업을 발굴했다. 2017년 3월에 스페인 마드리드, 사라고사, 바르셀로나를 방문해 풍력·태양광·나노 소재 관련 6개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4월 폴란드와 덴마크를 방문, 폴란드 전기버스 생산기업인 POL-MOT와 세계 1위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덴마크의 Vestas, 덴마크 국영 전력기업인 Dong Energy 등 에너지 기업 7개사와 투자상담회를 개최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들은 나주 에너지밸리

에 R&D센터 설립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풍력·태양광 발전 개발 기업들은 한국 진출을 위한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참여에 큰 관심을 가졌다. 11월 스위스와 프랑스를 방문, 스위스 로잔대학 스핀오프 기업인 Elanix Biotechnologies, 프랑스 EV(전기자동차)기업인 XYT 등 5개사와 투자상담회를 개최했으며, 2017년 총 18개 바이오제약, 에너지 신산업 관련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했다.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외자유치팀장 이익신, 담당자 조형근, 장경희

나. 일본 IR 활동

2014년 9월 일본 스미토모세이카사와 1억불 규모의 고흡수성 수지 생산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11월에는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부품소재 및 식품가공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2015년 6월과 8월에 2차례에 걸쳐 일본의 첨단소재 및 식품가공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2015년 6월 도쿄에 소재한 미쓰비시레이온, RIMTEC 등 잠재투자기업을 방문했으며, 오사카에서도 식품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2015년 8월 도쿄에서 식품기업, 정밀화학분야 잠재투자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했다. 그 결과 한국 진출에 관심을 두는 39개 기업을 발굴했고, 같은 해 11월 26일과 27일에는 주한 일본기업인 협회인 서울재팬클럽 소속 25개 잠재투자기업을 초청해 도내 산업단지 등을 둘러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7년 6월 도쿄에서 콘텐츠, 제조업, 부동산개발 분야 잠재투자기업을 방문하여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그 결과 한국 진출에 관심을 갖는 6개 기업을 발굴했다. 8월 일본 카지노개발사인 JDS와 폴리스틸렌 제조사인 Renasys Corporation, 게임기 제조사인 Cats 기업

을 초청해 광양만권자유구역(GFEZ)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등을 시찰하고 잠재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스미토모세이카와 800억원 규모의 고희수성 수지 생산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 일본 콘텐츠·관광개발 투자유치 활동(2017. 6.) 】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외자유치팀장 이익신, 담당자 조형근, 장경희

다. 중국 IR 활동

솔라시도, 여수 경도 등 주요 관광프로젝트에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했다. 2014년 10월 이낙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북경에서 중국의 골드윈드와 한국 DMS간 풍력발전기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이낙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4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했고, 북경에서도 10월 부동산 개발 기업과 식품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82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에너지신산업 및 소재부품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을 추진했다. 2016년 1월 중국 첨단사업의 메카인 선전과 심양을 방문하여 선전홍콩기업가협회, 광둥성기업가협회 등 기업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동산 개발 및 드론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같은 해 중국 청도와 대련을 방문하여 여수 경도 잠재투자기업과 투자상담을 진행했으며, 동방전기 등 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3개 제조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중국 에너지신산업 투자유치 활동(2017.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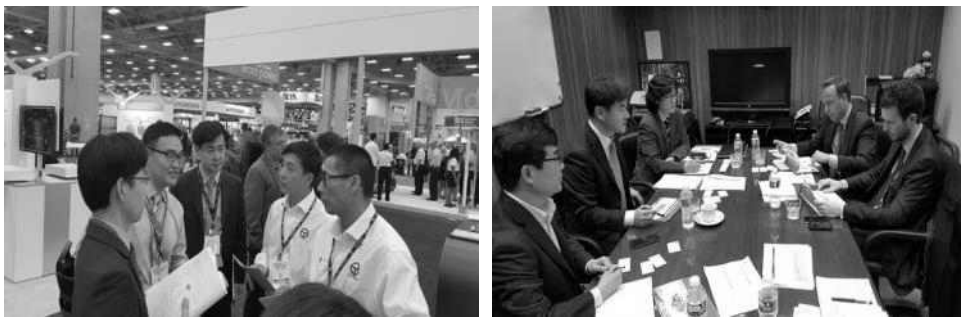
2017년 2월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중국 항저우와 윈저우 등을 방문하여 중국 전기·하이브리드차 생산 선도기업인 길리자동차홀딩스와 공업용전기 중국 내 1위 생산기업인 정태그룹 관계자와 투자상담회를 개최했고, 5개 에너지신산업 관련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외자유치팀장 이익신, 담당자 조형근, 장경희

라. 빛가람 에너지밸리 활성화 IR 활동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2015년 본격화한 이후 도입기를 거쳐 2016년 까지 177개 기업을 유치했고, 2018년 4월까지 310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 본격 성장기로 접어들었다.

2016년 5월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미국 달라스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하여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인 Schneider Engineering, Eaton 등 8개와 투자 상담을 개최하여 빛가람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북미 에너지신산업 유치활동을 전개했으며, 세계 최대 송배전기기 전시회인 IEEE T&D에 참가하여 에너지밸리 홍보관 운영하여 태양광 발전회사인 캐나다언솔라 등 4개의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했다.



【 미국·유럽 에너지 신산업 투자유치 활동 】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빛가람 혁신도시에 에너지 신산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한전과 공동으로 2017년 4월 폴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여 전기자동차 및 풍력발전개발사 등 에너지 신산업분야 7개 잠재투자기업을 발굴했다. 도내에 입주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영업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느끼고 있는 애로·건의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내에 1백만불 이상 투자한 47개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전남도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매년 1회씩 기업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방안 조언과 관련 부서를 통한 One- Stop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애로사항 신속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시군과 공동으로 제도개선 등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2017년 134건을 처리했다.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외자유치팀장 이익신, 담당자 조형근, 장경희

마.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조성을 위해 최근 광양 세풍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2017. 11.)했다. 아울러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도 스미토모세이카폴리머스코리아(2017. 10.),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마스(2017. 2.), 한국바스프(2016. 5.) 4개사를 지정하여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추가 외국인투자를 유인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정보 수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 '전라남도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 해외 투자유치, 통상과 교류 활동의 전진기지로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 기업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문기관인 코트라(KOTRA)의 기업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도의 최신 투자환경과 투자정보를 수시 업데이트하여 국내·외 기업인이 온라인망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한국기술벤처재단, 한전 등과 공동으로 투자정보 입수와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외자유치팀장 이익신, 담당자 조형근, 장경희

바.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전남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2014년 1억 2,283만 달러, 2015년 7,869만 달러, 2016년 8,121만 달러, 2017년 1억 7,301만 달러를 달성했다.

전남지역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해외자본 유입이 두드러졌던 석유·화학 분야의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서 전남도의 외자 유치 실적도 크게 향상됐다.

2017년 전남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1억 7,300만 달러로, 2016년 대비 2.1배(2016년 실적 8,100만 달러) 증가했다. 외국기업 도착금액도 2016년 5,900만 달러 보다 대폭 상승한 8,4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선전했다. 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요를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금액이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나면서 향후 투자실현(도착금액)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17년 전남도 내 외자 유치 실적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7월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일본 기업인 LG MMA은 1,290억원을 투자했고, 같은 국적기업인 스미토모세이카도 지난해 11월 8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두 기업은 이미 공장신축 및 증축을 위한 설계에 들어간 상태이다. 스미토모세이카는 전남투자만 두 번째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콘텐츠 분야 최초로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2017년에는 '폴투원코리아', '발할라네트웍스'등 일본기업이 혁신도시에 둠지를 틀었다. 직접 투자금액은 적지만 고용효과는 제조업 분야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 입주 후 130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과거 대부분의 외자 유치는 외국기업이 몰려있는 여수국가산단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외자유치 분야의 유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입지·교통·물류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국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 투자 도착액은 128억 1,700만 달러로, 이 중 71.1%(91억 1,600만 달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외자 유치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해외유치

실적 목표치를 4,000억원으로 잡고, 기존 제조업 분야 외에도 섬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 등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김기홍, 외자유치팀장 이익신, 담당자 조형근, 장경희

2-3. 섬·해안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유치

가.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유치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미래에셋이 1조원대의 투자를 약속한 여수 경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11월 22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국내 유일 '섬 해양복합관광단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2017년 1월 국내 최대금융그룹인 미래에셋을 비롯해 전남개발공사, 여수시, 광양청과 함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이행협약(MOA)을 체결했다. 2월에는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을 신청해 1개월에 걸쳐 20여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무사히 마치고 2017년 11월 3일 최종심의·의결하고 2017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함으로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했다.



【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투자협약 체결(2017. 1.) 】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18년 상반기 내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하반기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200실 규모의 6성급 호텔 등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4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 수상빌라, 워터파크, 요트마리나 등 아시아 최고급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경도 개발은 1조 7000억원이 넘는 생산 유발효과와 1만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추진부서 ● **투지유치담당관 김기홍** **신산업유치팀장 최영택**, **담당자 나명수**

나. 섬·해안 기반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다도해 섬 자원을 활용하여 테마별 섬·해안 개발, 해양레저 시설개발 등 섬과 해안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2016년 9월 전남 서·중부권 해안·섬 개발을 위해 전남도,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T/F단을 구성하고, 2017년 1월까지 전남 서·중부권 해안(섬) 개발지 10개소를 평가하여 신안 임자지구, 자은지구, 무안 운남지구 등 3개소를 우선 개발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우선 개발후보지 3개소의 투자유치를 위해 2017년 8월에는 국제부동산 박람회에 전라남도 홍보관을 운영했고 11월에는 서울·경기 수도권지역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해안(섬) 자원의 투자환경을 홍보했다. 해외 외자유치 투자 상담 시 해외 부동산개발 투자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도·시군과 합동 투자 상담을 통해 잠재 투자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

개발대상지별 행정·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이며 국비 지원사업에도 꾸준히 공모하여 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환경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했다.

2014년 12월 신안 압해 관광휴양단지, 2017년 1월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6월 고흥 진지도 복합휴양단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MOU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12월에는 진도 대명 해양리조트의 착공식이 있었으며 2022년 리조트, 워터파크 등의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진도 대명리조트 착공식(2016.12.)】

【고흥 진지도 투자협약(2017. 6.)】

도에서 2016년 제안한 ‘섬의 날’ 제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2019년부터 8월 8일을 ‘섬의 날’로 확정함에 따라 해안(섬) 개발의 투자유치 가능성이 더 커졌다. 전국의 섬 65%를 보유하고 있는 도는 앞으로 해안(섬)의 최적 투자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투지유치담당관 김기홍 신산업유치팀장 최영택, 담당자 김영신

3.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1. 지역대표산업 육성 사업

가.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산업 육성

석유화학산업은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화학 반응과 공정을 통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화학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전남도는 여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고분자 용·복합소재 산업을 경쟁력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대단위 석유화학 원료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에틸렌 기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화학 및 첨단제품 비중이 매우 낮은 기초석유화학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미국, 중동, 중국 등의 맹추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범용제품제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주도형 산업구조로의 재도약이 시급하다.

전남도에서는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산업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선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주력산업인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산업을 육성했다.

정밀화학소재, 친환경 생체·고분자소재, 수송기계용 고분자소재를 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고부가 소재와 부품의 기술개발, 제품 신뢰성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중점 지원했다.

전남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을 통해 기술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화학철강팀장 임만규, 담당자 임시우

나. 금속소재 가공산업 육성

금속소재산업은 광석으로부터 추출, 제련 등의 과정을 거친 원재료를 정련, 주소, 성형, 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부품화 전 단계의 중간재 산업이다.

철강은 다른 소재보다 강도가 높고 저렴하며 가공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조선, 플랜트, 기계, 가전 등 전방산업과 원료,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수요를 유발시키는 산업간 연관효과가 매우 큰 국가전략소재산업이다.

전남 철강산업은 도내 제조업 생산액의 20%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으로 관련 기업체는 285개로 전국 대비 2.3%에 불과하나 생산액은 9.2%를 차지하여 국내 철강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남도는 금속소재 및 가공산업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 및 지역 내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금속소재·가공산업을 지역대표산업으로 선정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간 금속소재가공 기술개발(R&D) 사업 및 금속소재·가공산업 통합기업지원서비스산업 등 비R&D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국도비 2,489백만원을 지원했다.

금속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금속소재 및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을 집중육성 지원하며, 금속소재 기술 산업화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가공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2017년 9월부터 15개월 기간으로 예타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에 걸쳐 민자 378억을 포함하여 2,686억원이며, 사업위치는 전남 순천 해룡산단으로 사업내용은 글로벌 마그네슘 연구센터 및 실증단지 구축, 특화산단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지원 등이다.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가공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통해 마그네슘 핵심 가공기술과 함께 장비 개발로 전남이 마그네슘 분야 국내외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화학철강팀장 임만규, 담당자 이상현

다.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

바이오 식품산업은 기존 전통식품에 기능성이 부가된 식품을 생산, 가공 및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며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력산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난대성 특용자원기반 식품 및 해양자원가공식품 등 지역특화자원에 기반한 바이오식품산업 육성과 기업특성조사·생태계조사에 따른 맞춤형 기업지원, 친환경·기능성식품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이 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6,039백만원(국비 14,416, 도비 1,623)을 투자하여, 지역 내 기업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창출 확대 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기업 등에 기술개발,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으로 원료공급 및 가공, 생산을 일관화한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식품 일류 선도기업 발굴·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 주력산업 바이오식품분야 주요성과 】

구 분	과제수 (건)	사 업 비(백만원)			발 생 성 과		
		국비	지방비	계	신규고용 (명)	매출액 (백만원)	
2015	계	10	2,695	958	3,653	94	3,300
	R&D	9	1,492	665	2,157	28	400
	비R&D	1	1,203	293	1,496	66	2,900
2016	계	21	4,939	665	5,604	119	7,359
	R&D	15	3,189	665	3,854	42	2,208
	비R&D	6	1,750		1,750	77	5,151
2017	계	21	5,090		5,090	93	9,912
	R&D	14	3,190		3,190	45	1,732
	비R&D	7	1,900		1,900	48	8,180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김미선

라. 에너지설비 산업 육성

에너지산업 육성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부품·소재 및 관련 장치, 설비 분야와 ICT 융합을 통한 에너지 전송, 관리, 이용 기반의 솔루션 및 시스템 분야를 지원하는 산업이다.

신기후체제 진입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에너지신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목표를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친환경에너지, 전력절감,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신산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기업 700개 유치, 일자리 3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6.5조원을 투자하는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2015년부터 에너지설비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2017년까지 기술개발(R&D) 및 기업지원(비R&D)을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국·도비 총 7,606백만원을 지원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을 할 수 있고, ICT 등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R&D)사업 추진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했다.

신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그리드 등을 연계한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실증연구를 통해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활용, 설비 사업화, 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사업 등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업지원(비R&D)사업은 에너지설비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품고급화 지원사업,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기술사업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기술 개발시 파급효과가 큰 R&D 기술은 한국전력에서 추진하는 주력연구과제와 연동하여 기술개발과제 결과물의 사업화를 제고하고, 비R&D 분야는 사업 간 연계로 시험제작에서 국내·외 마케팅까지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R&D 중점 투자대상 】

구분	우선 순위	유망제품 (기술)	중점대상	주요지원내용
R & D	1	에너지 저장	소비자 수요 중심 ESS	· 능동적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ESS 시스템 및 접속반(MJB)제품 신뢰성 확보
	2	에너지 전송	친환경 운송산업 생태계 및 social infra 구축	· 전기 배터리의 전력 계통의 역전송하는 V2G시스템의 고효율화와 신뢰성을 갖는 제품군
	3	에너지 ICT	에너지 설비 현장 실증을 위한 지속 가능 체계 구축	·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통해 시스템 신뢰성을 확보 및 실증기술 확보
	4	에너지 전송	차세대 송배전 시스템 고효율, 대용량화	· DC 배전망의 상태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AMI의 기술 및 ESS연계가 가능한 전력변환기 고효율 토폴로지 개발
	5	에너지 ICT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시장 스마트화	· IoT 분석데이터에 기반한 풍력발전기(단지) O&M 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전략 수립
	6	에너지 응용	신재생 전력, 열, 연료의 가격 경쟁력 향상	· 태양광 발전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 태양의 위치변화에 대응하는 회전 자동제어 기술개발
	7	해양산업	저탄소, 고효율 청정발전 시스템	· 전남 서해안 등 도서지역에 소형 발전장치(수력, 조력 등) 개발
	8	에너지 전송	마이크로 에너지그리드 수출 사업화	· 손실 및 제어기 성능 및 전전압을 고려한 최적의 Grid 전압 설정을 위한 기술 개발
	9	에너지 ICT	인공지능과 IoT를 이용한 에너지 기술 고도화	· 한전 IoT표준을 지향하는 e-IoT 통합 Gateway 개발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에너지밸리팀장 배용석, 담당자 남세일

마. 스마트 친환경 선박산업 육성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 평형수 처리장치 탑재 의무화 등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시행에 따라 스마트 친환경 선박이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부각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선박 평형수

배출처리 설치를 강제화하고 2020년 1월부터 전 해역 선박연료 황산화물(SO_x) 함유기준치를 3.5%에서 0.5%로 낮추고 질소산화물(NO_x) 배출량을 약 80%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한 분야로 스마트 친환경 선박산업을 육성한다. 전남과 부산이 협력하여 ICT융합형 스마트 친환경 선박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철의장품 스마트 생산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7개 과제, 31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에 전남도는 스마트 친환경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담당자 김자영

바. 바이오활성소재 산업 육성

바이오활성소재 산업은 자연계의 식물, 동물, 미생물의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천연화합물과 이를 가공, 발효, 합성하는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 소재와 이를 응용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계획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 강원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특화자원(천연물 식의약소재, 뷰티소재, 합성첨가물대체제, 식자원생산지원소재)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활성소재육성 및 기업특성조사, 생태계조사에 따른 맞춤형 기업지원(비즈니스협력형패키지, 지역협력형 R&D, 종합기술지원형 비R&D), 협력권 인프라 활용 공급사슬 및 가치사슬 통합구축을 통한 연계 강화사업 등이 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3,098백만원(국비 14,937, 도비 8,161)으로, 시·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의 개발 및 R&D(기술개발),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활성소재 산업 육성으로 시·도 간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고용성과를 크게 창출하는 광역적 산업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고 경제협력권 연계로 기술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 2015년~2017년 경제협력권산업 바이오활성소재분야 주요성과 】

구 분	과제수 (건)	사 업 비(백만원)			발 생 성 과		
		국비	지방비	계	신규고용 (명)	매출액 (백만원)	
2015	계	13	4,492	2,354	6,846	104	26,269
	R&D	11	3,681	1,604	5,285	69	3,864
	비R&D	2	811	750	1,561	35	22,405
2016	계	16	5,112	2,675	7,787	178	
	R&D	14	4,301	1,925	6,226	59	6,431
	비R&D	2	811	750	1,561	119	16,032
2017	계	17	4,362	2,731	7,093	118	23,192
	R&D	15	3,661	1,981	5,642	70	14,351
	비R&D	2	701	750	1,451	48	8,841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김미선

3-2.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

가. 여수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혁신사업) 추진

여수산단은 정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따라 1967년 조성이 시작되어, 현재는 정유, 화학, 비료 등 종합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최대 생산거점으로 성장했다.

2017년 기준 297개 기업이 입주해 22,71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이 79조 9,584억원(수출 32,713백만달러)으로 국내 국가산업단지 중 2위(울산·미포 107조 4,790억원)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산업시설의 노후화, 유가하락, 후발국의 석유화학산업 성장으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전남도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에 따라 여수산단을 혁신단지로 지정하고 역량강화, 안전, 환경 및 인프라 개선 등 20개 혁신사업(3,454억원)을 2016년도에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여수산학융합지구 조성(415억원), 여수혁신지원센터 건립(120억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건립·운영(14억원) 및 미래 신성장동력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 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214억원) 등을 확정하여 추진하며, 연구기관, 기업, 학계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산단산학지원팀장 최정운, 담당자 한재국

나.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전남도는 석유화학산업의 시설 노후화와 범용제품 편중으로 인한

성장 한계 직면과 중동·중국 등 화학소재 후발국들의 시장 추격 및 만성적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기능성 화학소재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신뢰성 평가, 범용 및 차별화·고도화 제품 테스트베드 연구기반 및 인증센터 구축, 사업화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했다.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602억원으로 기반구축 393억원, 연구개발(R&D) 202억원 이다. 연면적 7천㎡(4층) 융복합소재실용화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장비 16종을 구축하고 반도체용 고방열 고접착, 차세대 리튬염 배터리 전해액, 초고속 고품질 디지털 프린팅용 잉크염료 및 무독성 스마트 축방열 폴리우레탄 소재 개발 등 사업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기능성 화학소재 생산에 필요한 공정개선, 신규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애로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수행한다.

2018년 5월 융복합소재실용화지원센터 준공되어 2020년 8월 까지 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실용화 지원 사업 및 국제인증을 통해 기능성 화학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개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정밀화학기업을 세풍산단 내에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화학철강팀장 임만규, 담당자 임시우

다. 주력산업 활력 추진단 구성·운영

전남 주력산업 비중은 도내 제조업 생산액의 9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유가 하락 및 중국의 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기에 지속 가능한 신성장동력 발굴

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는 주력산업의 새활력 찾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2014년 7월부터 주력산업 활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차 주력산업 활력 추진단(2015. 12.~2016. 3.)은 3개분과(석유화학, 철강, 조선) 50여명 내외로 구성됐고, 한중 FTA 대응방안,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한 주력산업 발전방안 및 전라남도 유망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주력산업 활력 추진단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산업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외·국내 주요 동향에 맞춰 전라남도의 문제점과 장점을 분석하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정책과제는 자문위원 검증을 통해 신규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유망신규사업은 전문적인 기획을 통해 전남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화학철강팀장 임만규, 담당자 홍영진

라. 해양 용·복합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해양 용·복합소재는 극한 해양환경의 특수성(습도, 염분, 파도, 심해압력, 저온 등)을 견디는 고성능·경량화 新섬유 및 용·복합 첨단 신소재로 기존에 사용되던 소재가 저온, 흡습 상황에서 강도가 저하되는 약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 환경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저온 환경 고강도섬유, 내염분·내흡습성 등의 성질을 갖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해양 용·복합소재 산업은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양레저 선박과 크루즈 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및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의 선박수요 전환 등에 따라 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고강도, 초경량화, 고내구성, 고기능화, 친환경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연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해양 용복합분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 용·복합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및 R&D 사업을 추진코자 2013년 부산광역시와 MOU 체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1월 18일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21년까지 총사업비 888억원(국비 534, 지방비 219, 민자 135)을 투자한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고흥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일원에 81.2억원을 투자하여 시험생산동 2동 및 제품 생산장비 3종을 구축하게 되며, 해양 용복합소재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신소재우주항공팀장 민일기, 담당자 엄기탁

마.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항공·우주·자동차·전자기기용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융합형 고무소재 및 제품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고무소재산업은 다품종·소량 생산형에 적합하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전무한 현실로 석유화학기반 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적합한 첨단 고무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 가치화 견인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성능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226억원으로 소재 개발부터 양산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센터(부지면적 8,824㎡, 건축면적 5,358㎡)는 연구동과 고무배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장비 47종을 구축하여 기술컨설팅 체계 및 국제 공인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뢰성 향상 지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신규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첨단 고무소재 상용화 지원센터센터를 착공했고 2018년 12월까지 센터가 완공되면 세계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관련 기업 매출 1,000억원 증대와 일자리 26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화학철강팀장 임만규, 담당자 임시우

3-3.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가.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 기술’을 활용하여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공정 산업이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산업을 의미한다.

뿌리산업이 산업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3D(Dangerous, Dirty, Difficult) 업종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우리나라의 뿌리산업 경쟁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뿌리기업(584개사)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첨단장비 확보와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하여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했다.

이에 전남도는 2015년 2월에 「전라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계획을 확정하여 전남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 이어 전남도는 본격적인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2016년 3월에 순천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순천뿌리기술센터는 뿌리산업의 6대 공정중 ‘소성가공’과 ‘표면처리’에 특화된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센터 건설은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6월에 순천해룡산단에 센터를 착공했고, 201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첨단장비 및 센터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영세한 뿌리기업의 R&D를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전남 뿌리산업이 3D 산업에서 ACE(Automatic, Clean, Easy)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산업정책팀장 조재웅, 담당자 김형균

나.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화학, 기계 등 주력산업에 적용되는 소재·부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이며 또한 고용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전남도는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하여 지속해서 뿌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뿌리기술별 선도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특화된 뿌리기술에 기반을 둔 전남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기술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매출 증가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1단계 사업(1, 2차)의 주요성과로는 153개 기업에 19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매출증대 811억원, 신규고용 183명, 논문게재·기술이전·특허 등 50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또한, 전남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뿌리산업 융합을 통한 뿌리기술 구조고도화를 위해 2단계 사업을 2018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추진한다.

【 지원기업 소재지 및 소재지별 지원프로그램 】

(단위 : 개)

합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고흥	보성
190	3	11	42	6	25	12	2	2	2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광주
	1	1	2	51	3	6	2	18	1

【 뿌리기업 업종별 지원프로그램 현황 】

(단위 : 개)

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190	20	18	37	97	8	10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산업정책팀장 조재용, 담당자 곽주민

다. 광양제철 ~ 여수산단 해저터널 구축

전남도는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부산물)를 교환하기 위해 총사업비 2,400억원을 투입하여 양 산단을 관통하는 총 3.98km 구간의 해저터널을 건설을 추진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설계 및 인허가를 취득한 후,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해저터널 구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2015년 5월,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전라남도, 포스코, GS칼텍스, 전남개발공사, 여수상공회의소, 페트로코리아, 광양시, 여수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광양제철 제철공정 및 석탄가스화 공정상 발

생하는 부생가스(CO, H₂) 등을 여수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하고 여수 석유화학 업체의 부산물을 제철소에 공급한다.

해저터널사업은 철강을 주력으로 하는 광양산단과 석유화학의 여수 산단을 해저배관망으로 연결해 에너지와 폐자원, 제품, 유틸리티 상호 교환 및 재자원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양 산단의 원가 및 환경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주된 목적이다.

여수-광양간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연간 1,2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화학철강팀장 임만규, 담당자 홍영진

라. CO₂ 고부가가치 산업화 플랫폼 구축

2015년 12월 COP21 파리 협정 타결과 함께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저탄소 및 기후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할 것을 공표했으며, 감축 목표 달성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전남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자원 선순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주도형 고부가가치사업인 CO₂ 전환·활용 산업(CCU)을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 여수국가산단 삼동지구에 CO₂ 고부가가치 산업화 플랫폼 구축 센터를 착공했고, 2021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219억원을 투입하여 산업현장에 CCU 기술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기반, 기술 연구, 제품 표준화, 실증화 시설 등 기술 발전 및 정착에 필요한 설비·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로써 산단 부산물의 자원화 및 1,200여개 업체에서 약 2천억원의 수입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시험평가 장비 및 시스템 등 관련 기술 및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공동 연구개발이 활성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것이며 연관산업의 육성 및 신시장 창출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화학철강팀장 임만규, 담당자 홍영진

3-4. 조선해양산업의 다각화

가. 조선해양산업 위기 극복사업 추진

조선해양산업은 지난 2007년까지 10여 년간 승승장구 했다. 많은 고용창출, 높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효자 산업이었다. 대형 조선사는 저임금 하청 중심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더 많은 이윤을 확보했다. 전남은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 선박블록을 생산하는 조선해양기업이 밀집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 경기가 침체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해상동량이 감소하고, 선박은 과잉공급 됐다. 일시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반등하기도 했으나, 조선해양산업은 어려움에 빠졌다.

전남도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조선해양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우선 새로운 조선업 보완 먹거리 발굴을 지원했다. 민선6기 동안 중소조선 해양기업 육성사업 9.5억원, 위기업중(조선해양기업) 기술개발지원에 27억원, 조선해양산업 사업화 신속지원사업 21억원, 조선해양플랜트 육성사업 41억원, 조선해양기업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지원사업 24억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사용화 지원사업에 37억원 등 조선해양기업 육성을 위해 16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중소형 선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에 84억원을 들여 서남권 해양레저장비산업 기반을 구축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에 265억원,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에 180억원,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에 200억원, 선박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235억원 등 총 880억원을 들여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해경 서부정비창 신축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분원과 같은 국가기관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

고용유지를 위해 조선산업이 2016년에 1년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대정부 건의를 통해 2018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되어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양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이 지원되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업 활력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지원한다.

대불산단 내 조선밀집지역 현장지원반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다. 전남 조선산업 정보망(www.jnship.kr)을 통해서도 조선해양산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5월 4일에는 목포·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5월 29일에는 목포·해남·영암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조선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

세계 중소형 선박 발주량은 2019년에, 대형선박과 고부가가치 선박은 2020년에 활황기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도는 조선해양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담당자 김 선

나. 선박수리 지원시스템 구축

전남도는 섬이 많고 어업이 발달하여 어선, 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이 많으며, 정기적인 수리·보수 수요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남 지역 선박 수리 업체는 단순 청소 및 선체, 도장 수리만 가능한 실정이므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수리를 위해서는 경남, 부산 등 동부권으로 가야 한다.

이에 전남도는 지역 중소형 수리 조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수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간 35억원으로 총 235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9,000㎡, 건축 3,150㎡ 규모로 목포해양대학교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고속엔진 테스트 장비, 과급기 수리 장비 등 선박 수리 장비 23종을 설치하여 고가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중소 수리조선사들이 장비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 수리 기업 기술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담당자 김자영

다.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 구축

레저선박에 들어가는 부품·기자재는 건조 비용 6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 유럽, 미국,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산화가 절실하다. 분야별 국산화율은 추진·발전기 2%, 선체부품 30%, 인테리어 50%, 항해·통신 70%이다. 현재보다 30% 이상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반 구축사업은 2017년에 착수했다. 2021년까지 5년간 진행하며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센터 건립과 시험·인증 장비 21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장비 4종을 구입했다. 2018년에는 시험연구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장비 2종을 구입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시험·인증 장비 15종을 추가로 구입하고, 국제인정기구(KOLAS)로부터 레

저선박 부품·기자재 시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것이다. 선박의 고품질 디자인도 개발하여 레저선박 건조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레저선박 부품·기자재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높은 품질과 감성적 디자인 갖춘 레저선박 건조가 가능할 것이다. 단순 용접기술 위주의 선박블록 제작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조선해양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담당자 김 선

라.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전남 조선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사업다각화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먹거리산업인 해양플랜트분야 진출 목적의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플랜트 해상플랫폼 건조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개념·기본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과 기자재 국산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해양플랜트 구성요소 중 64%를 차지하는 해저생산처리시스템(해저 유정에서 원유 및 가스 등을 처리·생산하는 시스템)과 Umbilical(전력·통신 등을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 다발), Riser(해상과 해저의 연결 관로), Flowline(유정 간 생산물 이송 해저관로)의 국산화 기술개발로 관련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7,424㎡, 건축 2,615㎡ 규모로 영암군 대불산단내에 센터 완공 후 일부 구축 완료된 장비로 대우조선해양 등 6개 기업에서 의뢰한 시험분석과 인증시험을 수행했다.

또한, 2017년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반조성사업 166개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앞으로도 국제인증시험평

가를 수행, 차세대 케이블 설계 및 기술개발로 조선해양 기업체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최종 목표는 해양플랜트 핵심기자재의 기술자립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담당자 장유미

마. 에너지절감형 중소형 특화선종 개발

최근 점차 강화되고 있는 해양환경오염 규제로 CO2 배출량을 제한하는 국제 흐름에 부응하고, 중소형 조선에 특화된 전남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연료 소모량이 적은 선형을 개발하기 위한 '에너지 절감형 중소선박 특화선종 개발 사업'이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하여 여객선 1척, 벌크선 1척, 탱커선 2척, LNG병커링 1척, 컨테이너선 1척 등 총 6척 등 최소저항을 지녀 에너지를 8% 절감할 수 있는 최적 선형의 선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그리스 포시도니아 선박박람회, 2017년에는 노르웨이 국제조선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에너지 절감 특화선종 홍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수주 상담, MOA(거래조건협정)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담당자 장유미

바.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 구축

전남은 소형선박 건조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소형선박의 실해상 안전성 테스트 기반이 없어 선체침수, 좌초, 기관고장 등 해

상상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성능평가가 전무한 실정으로 이는 잦은 해상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따라서, 소형선박의 안정성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시험 기반 마련 및 체계적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목포 신항만에 부지 9,900m², 건축 2,400m² 규모로 시험동을 설계 중이다. 선박안전성 성능검증 시험장비 14종, 환경규제대응 적합성 성능검증 시험장비 7종, 기술개발지원 장비 7종을 비롯한 총28종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내 최초 소형선박에 대한 실해상 시험시스템을 갖춘 소형선박 생산거점지역으로 거듭나고, 해상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담당자 장유미

사. 중소 조선해양기업 육성

전남도는 도내 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주거나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실정에 맞추어 지원해주는 중소 조선해양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선해양산업의 각종 지원사업과는 달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원기관이 직접 파악해서 밀착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2013부터 2018년까지 6년간 12억5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했으며 그동안 2015년 13개사, 2016년 8개사, 2017년 10개사 등 총 55개사를 지원하여 중소조선해양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동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남에 소재한 조선해양 관련 기업으로, 다수의 기업지원을 위해 전남도 및 유관 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분야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담당자 장유미

4. 신성장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기반 구축

4-1. 생물산업 특화 육성

가.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

백신 글로벌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은 정부에서 2013년 9월 5일 발표한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에 따라 국내 백신산업 분야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산업체 임상, 시제품 생산 대행(CMO) 인프라를 보강하고 국가백신 주권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기획재정부 2014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2014년 11월에 국회 동서화합포럼에서 전남-경북 상생과제로 채택됐으며, 2015년 12월에 기재부 예타가 최종 통과됐다.

화순에는 836억원(국비 549, 지방비 287)을 투입하여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미 2017년 1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18년 9월 착공할 예정이다.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서 연구·시료생산(전남생물의약센터), 비임상(KTR), 임상(전남대병원), 백신 생산(녹십자) 등 백신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화순백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백신의 시료 생산 대행, 상업용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국가 백신 전문단지 확충을 통해 고급 일자리창출 및 세계 5대 백신 생산 강국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조영진

나.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전남 중부권에는 화순(녹십자 백신공장, 전남대병원), 나주(식품산업연구센터), 장흥(천연자원연구센터) 등 백신·식품·천연물 신약 관련 R&D·기업이 집적화되어 생물·의약 관련 클러스터 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의 백신·의료 인프라 및 풍부한 생물자원과 연계하여 국가생물·의약산업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혁신적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사업」이 19대 지역 대선 공약으로 최종 선정됐다.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는 단순한 백신 생산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연구·생산 및 치료·요양 기능까지 아우른 국가 생물산업 집적단지(플랫폼)로 조성된다.

앞으로 대선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공식 제안할 계획이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국가 생물·의약산업 분야 대표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개요(2019~2023)】

- 위 치 : 전남 나주시, 화순군, 장흥군 일원
- 사업내용 : ① 백신제품화 신속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② 생물·의약품 원료 생산 기반시설 구축, ③ 생물·의약품 벤처·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 : 4,713억원(국비 3,713, 지방비 1,000)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조영진

다.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전남도는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생물실증지원센터’ (2017~2021, 836억원) 유치를 계기로 화순을 세계적인 백신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12월 7일 국내외 백신 전문가로 구성된 「화순국제백신포럼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2016년과 2017년 2회에 걸쳐 화순국제백신포럼을 개최했다.

화순국제백신포럼은 국내 최초로 정부·지자체·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여 국내외 백신산업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기존 ‘학회’ 주도 연구성과 중심 포럼에서 벗어나 실질적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6년 제1회 포럼 시 1996년도 노벨의학상 수상자 ‘징커나겔’ 교수(스위스)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함에 따라 세계적 백신 석학들의 ‘화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으며, 세계적 제약社·유망 벤처기업, 국제연구소와 투자협약 체결로 화순 백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제3회 화순국제백신포럼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백신기술’을 주제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화순 하니움센터에서 열리며, ‘스페인독감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독감백신 생산도시로서 화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앞으로 화순백신포럼을 통해 정부, 연구소,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백신산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화순국제백신포럼을 ‘백신산업계의 명품 다보스포럼’으로 지속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2018 화순국제백신포럼(안) 】

- (기간/장소) 2018. 11. 15.(목) ~ 16.(금) / 전남 화순군(하니움센터)
- (참석자) 900명(국내외 제약기업, 백신전문가·연구원, 언론인 등)
- (주 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백신기술
- (후 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주)녹십자 등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조영진

라. 청색기술 산업화 추진

청색기술은 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생명체의 기본구조, 원리 및 메커니즘을 모방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기술로서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공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 청색기술 사례 : 물총새 입모양(日 신칸센열차), 연잎(방수복), 상어 피부(수영복), 홍합(의료용 습식접착제), 전복껍질(장갑차) 등

전남도는 청색기술의 기반이 되는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재)전남 생물산업진흥원 산하 6개 센터의 연구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는 등 청색기술 산업화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여건을 기반으로 청색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색기술 추진단(31명)」을 발족(2016. 4. 5.)했고, 광주과학기술원(GIST) 주관으로 「전라남도 청색기술 산업화 기본계획」을 수립(2017. 3.)했다.

특히, 산업통상부의 「2018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지역주력산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17억원, 3년 동안 총 50여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우수 청색기술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청색기술 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도는 2018년 10월초 환경부와 공동으로 「청색기술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청색기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 청색기술 산업화 기본계획 (2018~2023)】

- (사업규모) 부지 330,000㎡, 건축연면적 24,840㎡
- (총사업비) 3,338억원(기반구축 1,319, 기술개발 2,019)
- (사업내용)
 - 기반구축 : 청색기술 산업특구 조성, 복합지원센터, 산업화연구소
 - 기술개발 : 광합성 모사 건물 일체형 반투명 유기태양전지 등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조영진

마.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화순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이며, 백신 CMO(생물의약품연구센터), 비임상(KTR), 임상(화순전남대병원), R&D(생물의약품연구센터, 임상백신개발사업단, 프라운호퍼 IZI 공동연구소), 백신생산(녹십자 화순공장) 등이 집적화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화순백신특구로 지정됐고, 2016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심사를 거쳐 2020년까지 특구 지정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바이오·메디컬 관련 20개 사업, 총 9,28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현재 생물의약품산업단지, 생물의약품연구센터, KTR 헬스케어본부 등 11개 사업이 완료됐고,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녹십자 화순공장(증설),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등 9개 사업은 진행 중이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전국 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등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우수성을 공인받고 있다.

앞으로 제19대 대선공약인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아시아 백신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생물의약 분야 시책들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 화순백신산업특구 개요 】

- 위 치 :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화순전남대병원 일원
- 면 적 : 941,731.5㎡ (2010. 11. 26. 지식경제부 지정)
- 사업기간 : 2010 ~ 2020(1차 연장 : 2016. 4월 / 2016 ~ 2020)
- 근거법령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우수특구 선정 : 총 4회(2012 ~ 2015) / 포상금 총 2.5억원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조영진

바. 화순전남대병원 · 프라운호퍼 IZI 공동연구소 지원

화순전남대병원과 독일 프라운호퍼 IZI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이용하여 암 면역세포 치료제를 공동개발하기 위해 2011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해외우수연구소 유치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5.23억원(국비 34.23, 도비 9, 전남대 12)를 지원받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추진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바이오마커 발굴 및 상용화 가능성 탐색, 항암유전자 치료기술개발 및 침윤 억제제 개발, 다발성 골수종 세포치료제 연구 등을 수행하여 다발골수종 환자를 위해 수지상세포치료제(Vax-DC/MM)의 임상2시험을 완료하고 면역세포 치료백신 개발 분야 논문 101건(국외 93, 국내 8), 특허출원 13건, 특허등록 2건, 기술이전 2건을 확보했다.

공동연구소는 이 사업의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종양 조기 진단 센서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기업체 위탁연구 등을 통해 지역 바

이오메디컬클러스터 면역세포치료 제조기술 확산과 자가 수지상세포에 대해 자가 종양항원을 이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의약을 실현하여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의료서비스 창출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정진경

사. 동물대체시험인증 기반 구축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제품(화장품, 화학물질·의료기기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도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국내외 동물시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동물실험대체 시험인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이 2013년 산업부 산업융합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156억원(국비 50, 도비 35, 화순군 51, 자부담 20)이며, 화순 생물의학산업단지 내 부지 13,467㎡, 건축물 3,360㎡ 규모로 2015년 9월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에 동물대체시험센터를 준공했다. 이후 장비(118종) 및 피부임상시험법(17개) 구축하고 구축시험법 GLP 인증(5개)을 획득했다.

동물대체시험센터는 전남 도내 중소기업에 시험인증 평가비(건당 2~3백만원) 30% 할인,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해외인증 지원 등을 통해 도내 기업체들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화순지역을 One-Stop이 가능한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 생물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정진경

아.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 추진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는 비교우위 특산자원, 토종자원, 기후변화 대응 난대성·동남아 유용자원, 독성자원 등 미개척자원의 기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 사업비는 30억원(국비 16, 도비 9, 민자 5)이며, 주요사업은 생물정보 DB구축, 성분 분석, 기능성규명, 인체시험, 원료등록, 기업 기술지원 등이다.

주요성파로 신규자원 선발, 생물정보 DB구축 130종(누적 250여종), 기능성 규명 6자원 10건(누적 36자원 60건), 인체시험 3건[멸꿀-간보호, 차즈기-눈건강, 뜰보리수-남성갱년기] (누적 13건), 건기식 원료등록 1건 [비파엽-기억력개선] (누적 2건, 울금-알콜성 간 보호) 과 차즈기-눈건강, 간보호, 헛개+죽엽-장기능 2건을 추진 중이다.

또한, 특허출원 43건, 등록 36건(누적 특허출원 96건, 등록 50건), 기업기술이전 14건, 기술료 18.6억원 등의 성과를 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신규 자원조사, 건기식 원료 등록 추진 등 전남 자생 생물자원의 기능성 규명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김미선

자. 천연물의약품 원료 위탁 생산시스템 구축

천연물의약품의 연구개발과 국내 시장 확대에 발맞춰 선진국형 cGMP 시설 도입을 통해 고품질의 의약품 보급 등 천연물의약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국비 90, 도비 45, 군비 65)을 투입하여 화순 생물의약산업단지 내에 부지 17,094㎡, 건축물 5,000㎡ 시설 규모와 천연물의약품 원료 및 제형 생산장비 2세트의 장비를 구축하고, 원료 및 제품 최적화·표준화 기술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지역 농가 소득 향상과 국내 천연물제약 기업의 글로벌화 도모 및 수도권 기업의 지역 내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미국 FDA 인증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정진경

차.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바이오 중소기업 제품 수출 시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수출 품목 육성 및 바이오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 산업부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지정공모 선정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천연자원연구센터이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 등 5개 참여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97.5억원(국비 116, 지방비 71.5, 민자 10)이 투입되며 주관기관인 천연자원연구센터에는 89.3억원(국비 49.8,

지방비 37, 민자 2.5)이 지원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내 바이오 천연자원을 활용한 수출상용화 기술 개발 연구지원 기반 구축이며 천연자원연구센터에서는 기업지원 체계 구축 및 효능·효과분석 등 해외진출 제품의 효력 실증시험 지원 분야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바이오 소재 개발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5년 후 수출품목 육성, 기술료 수입, 고용창출 등 연간 1,000억원대 신규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정진경

카.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도내 잔류농약 관련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을 확대하여 농산물의 유해물질 분석 검사가 필요한 인근 지역 농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향후 장성 나노바이오산업단지와 연계한 나노안전성검사기관으로의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내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 도비 5)을 투입하여 시료보관실·기기분석실 등을 개조하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도입했으며 2017년 9월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시·군 농업기술원 및 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을 운영하여 농산물 유해물질의 정밀·정확한 측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안전성 확보 등이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정진경

타. 초임계 천연물 추출장비 고도화 사업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생산장비는 원료의 초기 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용설비로 생산성이 낮고 추출원가가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면 전남의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중인 기업의 시험생산장비 이용이 증가했다. 이에 도는 합리적인 추출원가를 제공할 수 있는 추출장비 및 시설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초임계 천연물 추출장비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5억원(국비 7.5, 도비 7.5)을 투입하여 기존 생산 설비용량을 증축(현행 200ℓ 급 → 800ℓ 급)하고, 지역 생물소재 원료 표준화 연구를 실시했으며 초임계 추출 DB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추출원가 절감(40% 이하)과 생산량 증가(약 4배)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장비 활용이 필요한 연관 기업 유치 등으로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생물산업팀장 황재필, 담당자 정진경

4.2. 신소재 및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

가.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추진

전남도는 고흥지역의 우수한 비행공역을 특화하여 전남이 전국 항공산업의 3대 축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민간 유일의 항공기 비행시험 시설인 고흥 항공센터를 산업통상자원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와 공동으로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기 이·착륙시험, 운용한계 성능시험, 정밀부품 성능시험 등 항공기 안전·성능과 관계된 각종 시험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은 항공안전기술원(KIAST)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분야별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약 360억원(산업부 240, 국토부 100, 지방비 20)을 투입하여 활주로 1.2km, 통제탑, 격납고 등을 구축한다.

또한, 전남도는 최근 급 부상중인 무인기(드론) 사업 육성을 위해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의 2단계 사업인 '유·무인기 통합·관제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지역이 항공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1, 2단계 구축 사업 추진으로 국내 항공기 성능, 비행특성 및 각 기능들과 안전성 검증, 운용한계 실제비행 검증 수행 등을 통한 국가 항공산업 발전 기여는 물론 지역 신규 일자리창출, 연관기업 유치·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 과장 김종갑, 신소재우주항공팀장 민일기, 담당자 이종신

나.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지원 사업 추진

전남도는 국가 우주기술자립,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 발사체의 탑재체 기술 능력 배양, 발사체의 신기술 적용 추진기관 개발 검증, 국내 상공의 대기 관측/보존, 우주 과학자 저변 확대 등 우주과학기술의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로켓개발 R&D, 발사운영, 발사체 기술습득, 인력양성, 센터구축을 목적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 우주관련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며 이를 총괄 기능을 담당할 과학로켓 센터도 고흥 우주항공센터 일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과학로켓(Sounding Rocke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3년 KSR-I, 1998년 KSR-II, 2002년 KSR-III가 개발하여 발사하였으나, 이후, 과학로켓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에는 각 대학별 실험실에서 지상실험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로켓이나 위성부품들이 우주환경에 대한 실증 없이 사장되는 실정이었다.

그동안 전남도는 한국형 발사체, 달 탐사선 개발 추진을 위한 발사체 기초기술 확보와 나로우주센터의 한정된 발사체 발사·추적 기능의 다양화, 주기적인 로켓발사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로켓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2018년도에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앞으로 과학로켓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나로우주센터 등 지역 우주관련 인프라와 연계하여 우주센터 개방사업, 우주과학관 확장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 과장 김종갑, 신소재우주항공팀장 민일기, 담당자 이종신

다. 미래 이동수단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전남도는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타 지역(광주, 울산, 전북, 대구)과 차별화되고 미래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의 틈새시장으로 e-모빌리티산업을 선정하고, 2014년부터 3개의 국비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연구개발 및 지속 가능한 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제1단계) 영광군 대마면 대마전기자동차 산단 내에 부지 25천㎡, 건축 3천㎡, 사업비 317억원 규모로 핵심부품의 성능·내구 평가 지원 및 일 충전 주행거리 인증지원 등을 위한 평가장비 구축, 3·4륜 모빌리티 개발, 중소·중견기업 원스톱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 유일 e-모빌리티연구센터가 2017년 11월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제2단계) 실 도로(실외) 실증환경 및 국내·외 인증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지 51천㎡, 건축 1.6천㎡, 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실외환경 평가시설, 플랫폼평가장비, 국내외 인증지원체계 구축이 2020년까지 완료될 것이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연구시설(Colla.Lab)이 2017년 11월 준공되었고, 2018년 3월 관련기업 22개사가 입주하여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제3단계) 건축 891㎡에 162억원 규모로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안전을 위한 경험측정 평가 실험장비 구축을 위한 디자인경험랩센터가 2022년까지 완료될 것이다. 디자인, 시제품 상용화 지원, 실내·외 평가환경 구축, 도로주행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으로 제품 디자인 개발부터 시제품 개발·인증·실증까지 제품 전주기 대응 가능한 e-모빌리티 특화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이다.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기업 11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관련기업 32개사와 투자유치(MOU)을 체결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 최초로 설립한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본사가 영광군으로 이전했고, 2018년 10월에는 영광군에서 산업부 주관 제1회 국제스마트e-모빌리티엑스포가(10개국, 200여개사)가 개최되어, 명실상부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도는 미래이동수단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화 정책에 적합한 기획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업개요】

- 사업명 :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 사업규모 : 부지 76천㎡, 건축 5.1천㎡/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산단 內
 - (1단계) : 디자인 융합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14.9 ~ '18.5월, 317억)
 - (2단계) :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기반 구축사업('15.9 ~ '20.8월, 300억)
 - (3단계) :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 구축('17.3 ~ '22.2월, 162억)
- 사업내용 : 3·4륜 Micro-모빌리티 개발, 평가·인증기반 구축(센터구축 및 평가장비), 실외테스트베드, 공동연구소, 경험측정·검증·인증체계 구축 등
- 주관부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부품연구원
- 사업규모 : '14.~'22년, 779억(국비 497억, 지자체 282억)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전기자동차팀장 박병수, 담당자 송동하

라. 차세대 마이크로응용 레이저가공시스템 기반 구축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LCD, LED 등 마이크로 전자산업 등에 첨단 레이저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정밀가공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가공기술 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2011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유치했다.

총 250억원(국비 204, 지방비 46)을 투자하여 2011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6년여에 걸쳐 장성 나노일반산업단지에 센터건축(2013. 6.완공) 및 장비구축을 포함한 '차세대 마이크로응용레이저 기반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레이저 시스템의 테스트 기반(주요장비 21종)을 구축하고 기업의 사업 아이템 가공기술 개발지원과 애로·선도 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레이저 가공기술을 지역 주력산업에 적용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및 우수 전문인력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기업 애로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해 국내 레이저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다.

민선6기 동안 기술개발 20개사, 기술지원 194건, 장비활용 517건을 지원하여, 마이크로 레이저 정밀가공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내 태양광, 전자부품, 세라믹, 금속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했다.

2018년부터는 「Bio-IoT센서 및 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차세대 스텐트 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센서 산업과 스텐트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신규사업으로 레이저 기반 약물전달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사업 등 레이저를 기반으로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산업정책팀장 조재웅, 담당자 김형균

마. 신소재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신소재 산업은 자동차, 우주항공, 정보통신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첨단기술의 복합체로서 기술혁신과 신규 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으로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등과 연계한 미래 성장동력으로써 향후 신소재산업 발전이 우리 지역의 산업 고도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소재기술 산업화 지원센터는 전남의 주력산업인 철강 및 석유화학분야 저부가가치의 산업구조를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유연성이 뛰어난 신소재 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혁신체제 강화를 위해 전남 순천에 센터 본동 및 보성·고흥에 지원동을 구축했다.

금속 및 고분자 신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지역 혁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양선박, 우주항공,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고기능성 금속 및 복합소재 개발,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을 통해 소재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개발사업 45개 과제(사업비 263억원)을 수행했고,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매출 1,956억원 향상 및 고용 805명을 창출했다.

금속·고분자소재 관련 대표기업으로는 마그네슘소재를 활용한 LED 방열판 업체인 (주)휴메릭이 있으며 2009년 매출액 7억원이 2017년 250억원으로 성장했다. 고분자 소재 관련 대표기업은 사일리지 필름을 생산하는 (주)죽암기계로 2011년 매출액 45억원이 2014년 157억원, 2017년 295억원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센터에서는 대형 신규사업 기획 및 정부 연구과제 수탁 사업 참여 확대와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화학철강팀장 임만규, 담당자 이상현

바. 첨단 세라믹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첨단 세라믹산업 세계 시장은 2015년 3,139억 달러에서 2025년 6,797억 달러로 연평균 7.8% 성장, 국내 시장은 2015년 582억 달러에서 2025년 920억 달러로 연평균 4.7% 성장이 전망된다. 첨단 세라믹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도는 이러한 첨단 세라믹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연관업종 기업수 증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는 목포시 연산동 세라믹산업단지 일원에 제1단계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310억원을 들여 부지 20,007㎡, 건축면적 9,285㎡ 규모의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제2단계는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 구축 사업으로 167.5억원을 들여 2016년에 완료했으며, 보다 세부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 원료소재 장비 45종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는 도내 세라믹 기업들이 이미 구축한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업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2020년까지 250억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첨단 세라믹 최강국인 일본과 세라믹 최대 자원국인 중국, 동남아와의 교량적 위치의 장점을 살려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 지속적 신규아이템과 자원 발굴을 통해 첨단 세라믹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신소재우주항공팀장 민일기, 담당자 이종신

사. 무인기(드론)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추진

국내 드론산업은 최근 촬영·농업용을 중심으로 민간수요가 증가 추세('16년 2,800억원 → '25년 2.2조원 성장 예상)로 농·임업, 영상, 건설·측량 분야로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다.

전남도는 드론산업을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유·무인기 항공기급 개발·시험평가·인증시험을 위한 '종합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비전과 10년 이내 기업수 10배, 고용 30배, 매출 200배 달성이란 목표 아래 ①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및 유·무인 통합 관제 인프라 구축 등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 ② 농업, 수산 등 무인기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비즈니스모델 발굴 ③ 무인기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유치('18년 3월 현재 4개소) ④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 육성 및 강소기업 도내 유치 추진을 위한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추진 등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도는 열약한 환경속에서도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기업 육성차원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무인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 부지 6.3천㎡, 건축 연면적 2.8천㎡(지상 4층, 22실), 178억원 규모의 정부지원 사업이 확정되어 2018년 8월까지 부지선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18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해서 추진해 우수한 드론특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항공 인프라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업종간의 교류, 기술개발 및 부품조달, 근대화된 시설개선 및 능률적인 창조형 작업공간 제공, 중소 드론업체들의 생산성 향상 도모, 각종 부대시설 제공, 작업의 편의성 확보 등을 통해 드론 기업유치와 연관 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신소재우주항공팀장 민일기, 담당자 이계명

아.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사업 추진

직류기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및 정책 강화로 빠른 산업 성장과 시장 확대로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으로 2020년 직류설비가 전체설비의 50% 이상,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 64.6억 달러에서 2020년 170.8억 달러, 2025년 335.7억 달러로 성장, 이와 함께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 6,500억원에서 2020년 1조7,000억원, 2025년 3조 3,5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13%, 전력수요의 15% 절감을 목표로 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020년 이후 출범하는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2015.11. 산업부)」을 발표 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민간 생태계 조성, 일자리창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ABB(스위스), SIEMENS(독일), AREVA(프랑스) 등 해외 선진업체가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직류기기·요소부품 R&D 및 상용화는 초기 단계로 관련 표준 부재 및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1,500V 초과하는 직류차단기, 직류개폐기 등 직류기기 부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

고 있다.

도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곡성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와 공동으로 차세대 산업용 전원의 주류가 될 고압 직류기기 및 요소부품에 대한 R&D 및 시험평가를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용부지 29,623㎡, 시험동 건축연면적 7,818㎡, 250MVA 직류단락시험설비 등 장비구축, 전담인력 확보 등을 위해 국비 230억원, 지방비 80억원, 민간 70억원을 투입하여 곡성군 소재에 「산업용 직류기기 시험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전력공사, 한전 KDN, 한전 KPS,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이전한 빛가람 혁신도시(나주)에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 12월 준공 예정)

도는 이처럼 최근 신 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을 전력·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은 물론 관련 기업 지역 유치·육성, 중소기업 협력 R&D를 확대, 전문인력 양성·확보, 신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신소재우주항공팀장 민일기, 담당자 이계명

4.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가.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정부에서는 2014년 12월 한국전력공사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에너지 신산업¹⁾ 중심의 기업,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여 글로벌 스마트 허브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미래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2015년 1월에 한전, 한전KDN 등 전력공기업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자치단체가 에너지밸리 조성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에너지밸리에 에너지 연관 기업 500개 유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매진했다.

2017년까지 250개 기업유치 목표를 뛰어넘어 누적 28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투자금액도 1조원(1조1836억원)을 돌파했고, 7,631명의 고용창출 목표도 달성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에너지밸리가 선정되어 지역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할 프로젝트로 부각했다. 전남도는 한전, 광주시와 에너지밸리 관련 국정과제, 대선 공약사업 공동 대응을 위해 에너지밸리 정책협의체를 가동했다.

창업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에너지 신산업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해 한전에서 건립 중인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에너지신기술연구소에 도비를 출연했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에너지밸리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기

1) ESS, AMI, 전기차, 마이크로그리드, HVDC, 에너지통합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등을 활용한 新 비즈니스군

반인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실증 및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추진했다. 산단, 대학교 등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ICT 융복합 기술이 함께 운용되는 스마트 에너지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있고, 태양광 폐모듈을 자원화하고 염전 증발지에 태양광발전 부지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주요 사업현황,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730억원		
· 나주동수농공단지 MG 플랫폼 구축 및 BM 개발	87억원	'16~'18	
· e-밸리 조성을 위한 나주 혁신산단 ESS, EMS 구축	23억원	'17~'18	
· 스마트 에너지 캠퍼스 조성(동신대)사	130억원	'16~'19	
· 에너지신산업 연계 SW 융합클러스터 조성(전남+광주)	320억원	'16~'20	
· MW급 태양광 발전 R&D 실증단지 구축	25억원	'16~'19	
· 태양광 폐모듈 자원화 기술개발 및 BIZ 모델 실증	30억원	'16~'19	
· 100MW급 염전용 수중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45억원	'16~'19	
· 에너지기반 스마트 팩토리 기술개발	70억원	'17.~'20	

지역인재 양성·채용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형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21년 나주혁신산단내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이 개설되는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원이 조성되면 에너지 분야 우수 전문 인력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다.

2017년 3월 16일 「전라남도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18. 12. 12.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집중 지원·육성하는 내용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에너지밸리를 국가정책으로 집중·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에너지밸리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선도모델로 이끌어낼 구상이다.

일자리창출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국가 정책사업이 혁신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춰 스마트 시티, 차세대 ESS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대규모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에너지밸리팀장 배용석, 담당자 남세일

나.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

전남도는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지원하여 에너지 공급여건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간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 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자금의 일부(50%이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00년부터 1,391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시설 221건, 태양열급탕시설 40건, 지열이용시설 40건, 기타 소형풍력과 폐기물, 소수력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에 8건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추진실적 】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00~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사업수	238	22	14	20	15	309
사업비	123,481	4,726	4,028	3,326	3,582	139,143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에너지정책팀장 이범우, 담당자 김수일

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사업 추진

전남도는 단독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 확대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에너지소비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주민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및 미니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및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비(도비, 시·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 지방비 지원 기준(2017년 기준) 】

(단위 : 천원)

구 분	설비 용량	2015년 지원액		
		소계	도비 (30%)	시군비 (70%)
태 양 광	1~3kW	400/kW	120/kW	280/kW
태 양 열	20㎡ 이하	60/㎡	18/㎡	42/㎡
지 열	17.5kW 이하	120/kW	36/kW	84/kW
연료전지	1kW 이하	1,000/kW	300/kW	700/kW
미니태양광	1kW 미만	1,460/W	438/W	1,022/W

사업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접수하고 보조금 신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한국에너지공단(국비) 및 관할 시·군(지방비)에 한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시설 보조사업은 그린홈 보급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 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

(단위 : 백만원, 가구)

구 분	계	주택지원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880	258	394	376	500	352
가구수	5,311	642	822	854	1,421	1,572

전남도는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권섭, 에너지정책팀장 이범우, 담당자 전홍수

라.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전남도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간이 그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시설(LED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을 설치할 경우 소요 자금의 일부(40% 이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1996년부터 지역 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업에 438억원을 투자하여 LED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교체 82건, 폐열회수설비시설 6건, 가로등 절전시스템 시설 13건, 건물 단열 시설 18건, 고효율기기 지원 12건, 기타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24건을 지원했다.

전남도는 향후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신에너지 절약 시설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실적 】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00~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수	155	109	15	17	9	5
사업비	43,834	26,732	3,850	4,646	4,576	4,030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에너지정책팀장 이범우, 담당자 김수일

마. 해양에너지 실험역 시험장 구축

전남도는 조석으로 간만의 차가 크고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류발전 후보지의 최대 부존량은 약 1,400만kW, 적정 개발 규모는 약 71.5만 kW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인 조류발전을 위해 해양에너지 실험역 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조류발전 대상적지로 진도군 울돌목(366MW), 장죽수도(1,867 MW), 맹골수도(3,088MW), 횡간수도(360MW) 등이 있으며, 2009년에 해수부에서 조류발전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울돌목에 시험 조류발전소(수직축 발전 시스템, 1MW급)를 건립했고 장죽수도에는 110kW급 조류발전기를 설치하여 실증을 완료했다.

2011년부터는 저유속 조류의 흐름에도 고효율 발전이 가능한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기술개발 사업」으로 20kW급 수평축 조류발전기 축소 모형을 설치 실험역 시험을 추진했으며, 2017년까지 터빈 제작, 실험역 운영 및 수중 지지구조물 개발 등 조류발전의 상용화 및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양에너지 조류 실증센터 유치를 위해 2015년 1월 해양수산부 해양청정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에 따라 실험역 시험장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도에는 주관기관 선정, 적지선정 및 기

본계획 수립 2019년 이후 실해역 시험장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실해역 시험장을 기반으로 해양에너지(조류발전) 실증단지 구축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전남을 해양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신재생에너지팀장 변태욱, 담당자 장동환

바. 풍력 Test-Bed센터 구축·운영

전남도는 지난 2011년 8월 지식경제부와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남의 풍력산업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및 다양화에 따른 완제품의 사업화를 위해서 풍력발전기 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정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총 135억원(국비 82, 도비 20, 기타 33)을 투입해 영광 백수읍 하사리 해변일원에 추진했으며 사업 주관기관인 (재)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목포대, DNV코리아 등 국내 풍력기기 제조업체 및 인증·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풍력발전기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 인증 및 실증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시험장소, 시험장비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 8월 착수해 2014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19년까지 5년간의 성과활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풍력 시스템 평가를 위해 구축된 주요 장비는 대형 풍력발전 및 소형 풍력발전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로, 20km 송전선로, 변전실, 대·소형 기상탑 및 모니터링 설비, 풍황 측정장비 등으로 구성됐다.

2014년 영광 테스트베드에 처음 설치된 유니슨의 U113/2.3MW 풍력기는 2015년 9월 최초의 국내인증을 확보했다. 이후 두산중공업의 3

MW 풍력기가 2018년 1월에 국내인증을 확보하여, 영광 테스트베드가 대형 풍력기 시험·평가에 있어서 최적지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유니슨과 두산중공업은 추가 풍력기 설치와 기설치된 풍력기의 성능 개량을 병행하고 있어서 풍력 시스템 평가 센터를 통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풍력시스템평가센터는 해상풍력 국가로드맵에서 제시된 영광·부안지역 해상풍력 실증단지과 연계하여 2019년까지 2.5GW의 해상 발전단지 건설과 전남 4GW 해상 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앞으로 풍력시스템평가센터를 활용하여 국내 개발 풍력발전기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평가, 시험 및 실증 지원으로 국내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이다.

풍력기 인증 및 표준화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 전기위원회(IEC) 회의 등을 지역 내에 개최함으로써, 전남도가 풍력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신재생에너지팀장 변태욱, 담당자 이득수

사.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조성

전남도는 도내 275개 섬 중 에너지 자립이 완료된 섬과 한전 전력계통이 있는 섬을 제외한 74개 섬 중 50개 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2017년까지 해남 삼마도(상마, 중마, 하마), 진도 가사혈도·가사도, 주지도·송도·동거차도, 광대도·양덕도, 독거혈도, 신안 옥도·상·중태도 등 14개 섬에 국비, 지방비, 민자 371억원을 투자하여 준

공·운영 중이다.

진도군 서거차도, 조도, 여수시 거문도 등 17개 섬에 371억원을 투자하여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신안 흑산도 등 나머지 19개 섬에 대해서도 정부에너지 자립섬 공모사업 및 한전 등과 협력하여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디젤발전 유인 섬 74개 섬 중 50개 섬에 대해서는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보급하고 화석연료 사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보급하는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7년까지 기존 에너지 자립섬 추진계획에 의해 완료된 섬 중 자립률이 높은 진도 가사도, 신안군 상대도 등 4개 섬을 완료하고, 2단계(2018~2020년)로 현재 추진 중인 여수 거문도 등 18개 섬을 포함 25개 섬, 3단계(2021~2025년)로 영광군 안마도, 낙월도 등 총세대 수가 70가구 이상인 21개 섬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100% 자립을 구현하여 카본프리를 선언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신재생에너지팀장 변태욱, 담당자 우삼식

아. 해상풍력 발전의 메카 조성

전남도는 서남해에 연평균 초속 7m이상의 바람과 20m이내의 얕은 수심으로 해상풍력의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2009년 5월 육상 1GW, 해상 4GW로 구성된 5GW 풍력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동안 풍력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풍력발전사업 활성화와 풍력설비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8월 민·관 공동으로 전남 풍력산업협회를 창립하여 기업 유치는 물론 해상풍력사업의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전남도 5GW 프로젝트는 전남의 풍부한 풍력자

원을 바탕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풍력발전기와 기자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풍력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용역기관인 DNV-GL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전남 서남해 해상풍력 4GW 타당성 용역 결과, 초속 7.5m이상의 바람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한 유일한 곳으로 평가되어 국내·외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2017년 12월말 현재 전남도 내 육상풍력발전 추진은 총 60개소에 1,660MW가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됐고, 이중 영암풍력, 호남풍력, 백수풍력, 약수풍력 등 15개소에 203MW 규모의 풍력단지가 상업운전 중이며, 공사 진행 중인 허가는 2개소에 101MW이며, 43개소 1,356MW는 준비 중에 있다. 허가된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경우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풍력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예정이다.

또한, 전남풍력산업협회의 회원사로 구성된 신안그린에너지에서는 육상풍력 62.7MW 시범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이는 3MW 풍력발전기 14기, 3.45MW 풍력발전기 6기를 신안 자은도 해변에 설치하고, 풍력단지 주변에는 해안도로를 개설, 주민편의시설, 야영장, 전망대 등을 설치해 풍력발전기와 어울어진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민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시범사업은 총 1조 5천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자하여 자은도 해상에 300MW규모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22년까지 시범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통해 전남도내에 풍력 터빈기업 유치, 부품공급망과 터빈 양산체제 구축, 연구기관 활성화 등으로 풍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5GW 규모의 육·해상 풍력발전사업이 완료되면 28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온실가스 557만톤과 144천명의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으며, 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신재생에너지팀장 변태욱, 담당자 이득수

자. 서남해안 대용량 전력계통망 구축

전남도 서남해안의 해상풍력 자연 여건은 국내 최고의 입지에 있어 우수한 바람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 조성이 용이하다.

그러나 풍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며, RPS 도입에 따라 발전 자회사, 건설사, 풍력기 제조기업 등의 투자 여력은 충분하나 도내의 전력계통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실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에 서남해안 대용량 전력계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30년까지 해상풍력 4GW 육상풍력 1GW 총 5GW의 풍력사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맞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0개월간 우리나라 최고의 전기전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 「서남해안 송전전력망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전남도 5GW 풍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송전 계통망 확보방안 및 소요 사업비를 분석하고 도내 송전 전력망 단계별 구축방안 및 구축비용과 국가 전력망과 연계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전력에서는 전남도의 추진계획에 맞춰 서해안지역 취약계통에 대한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신재생 확산대응을 위해 154kV 신안변전소(G-플랫폼스테이션)을 2022년 10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건설, 신재생에너지팀장 변태욱, 담당자 이득수

차. 에너지 복지 확대 추진

전남도는 안전성은 높고 가격이 저렴한 천연가스(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천연가스(LNG) 전국공급사업 기본계획에 맞춰, 오는 2020년까지 군단위 읍소재지(보성·영암읍) 1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1999년 목포지역을 시작으로 여수, 순천, 광양 등 1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했고, 2016년에는 강진, 고흥, 보성(별교읍)지역까지 공급지역을 확대하여 1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강진, 고흥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했고, 점차적으로 원도심 지역까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도서지역인 완도, 진도, 신안은 지리적 여건상 배관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군(郡)단위 LPG 배관망 또는 도시가스(LNG) 탱크로리 방식으로 2020년까지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LNG) 배관망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곡성, 구례, 여수, 완도, 강진, 신안, 영광 등 7개 시·군의 산간 및 섬 마을 연료사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함은 물론 연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2015년부터는 동절기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약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규모 섬 주민들의 소외감 해소와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소득 증대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까지 50호 이상 섬 지역의 전기공급 사업을 완료했으며, 2000년부터는 10호 이상 섬과 해월철탑으로 한전계통 전력공급이 가능한 5호 이상 30개 섬을 대상으로 전기공급 사업을 시작하여 2006년도에 완료했고, 2012년부터는 도내

유인도서 275개 섬 중 신재생에너지로 자립이 가능한 212개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14개 섬 준공, 17개 섬 추진 중)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 가스, 석유, 석탄, 광업 등 에너지 자원 수급현황]

2016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발전설비 용량은 11,292MW로서 전국 시설용량의 10.67%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원별 전력 시설용량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도내 발전량 】

(2016년말 기준, 단위 : GWh)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 고 (발전설비용량, MW)	
전국 전력 발전량	517,148	521,971	528,091	540,441	105,866	
전남 전력 발전량	계	67,705	77,493	78,461	69,055	11,292
	화 력	20,023	28,436	24,713	14,565	
	수 력	128	142	104	133	
	원자력	44,381	45,274	42,609	43,222	
	신재생 에너지	3,023	3,656	11,035	11,135	

2016년 말 기준 전라남도 전기사용량은 월 평균 2,758GWh이며, 연간 33,097GWh이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74%, 가정용 7%, 공공용 3%, 서비스용 16%이며, 연도별·용도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용도별 전력사용량 현황 】

(단위 : GWh)

구 분	2013	2014	2015	2016
계	30,302	3,1723	32,638	33,097
산 업 용	22,176	2,3736	24,388	24,462
가 정 용	2,207	2,163	2,205	2,282
공 공 용	849	854	888	931
서비스용	5,070	4,969	5,157	5,423

가스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로 구분되며,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스사용 가구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LPG는 LNG보다 열량이 높아 취사용, 수송(차량)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지역에서는 LPG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LNG로 전환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으로 점차 확대 보급되고 있다.

한편, 2016년 말 기준으로 전남도의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은 43.1%, 382천 세대이며, LPG사용은 52%, 460천세대로 가스보급률은 98.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가스연료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가스연료 사용현황 】

구 분		대상 수요가	수요가수	보급률 (%)	소 비 실 태	
					사 용 량	증감률(%)
2014	도시가스	868,217	343,891	39.6	574,164천㎥	감3.5
	L P G		511,625	58.9	-	-
2015	도시가스	876,075	369,292	42.2	547,347천㎥	감4.6
	L P G		495,068	56.5	-	-
2016	도시가스	886,465	395,047	44.6	588,162천㎥	증7.4
	L P G		480,780	54.2	-	-

전남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4개 사이며, 공급지역은 19개 시·군에 공급(본)관 길이는 1,637.2km이다.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가스 공급 현황 】

(2016년말 기준)

공급 회사명	주 소	공 급 지 역	배관길이(km)
계	4개 회사	18개 시·군	1,637.2
목포도시가스	목포시 영산로 742	목포, 영암, 무안, 강진	424.9
대화도시가스	여수시 만성로 178	여수	286.7
전남도도시가스	순천시 장성배기길 31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439.0
해양도시가스	광주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나주, 화순, 장성, 담양, 영광, 해남, 함평, 장흥	486.6

전남도 고압가스 및 LPG 취급 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스취급업소 현황 】

(2016년말 기준)

계	가 스 취 급 업 소 현 황						가스 시공업소
	고압가스 제조업소	고압가스 충전소	LPG 저장소	LPG 충전소	집단공급 업 소	L P G 판매소	
2,046	842	80	32	155	63	317	557

2016년도 전남도의 석유제품 소비량(납사 등 제외)은 18,074천배럴로 전국 소비량 309,547천배럴의 5.8% 수준이며, 2016년도 석유 소비량은 2015년 대비 1.0% 증가했다. 2016년도 석유류 소비량은 다음과 같다.

【 2016년도 석유류 소비량 현황 】

(단위 : 천배럴)

구 분	계	휘 발 유	등 유	경 유	방카 C유
2015년(B)	17,294	3,020	1,490	10,005	2,776
2016년(A)	18,074	3,074	1,697	10,246	3,057
A/B(%)	1.0	1.04	1.1	1.0	1.1

전남도 내 석유판매업소는 1,364개소이며, 이 중 일반대리점은 53개소, 주유소 976개소, 일반판매소 등이 335개소로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보다 일반판매소 등이 51개소 감소했다. 연도별 석유판매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연도별 석유판매업소 현황 】

구 분	계	일반 대리점	주 유 소	일반 판매소 등
2015	1,415	50	984	381
2016	1,364	53	976	335

2016년 말 현재 전남도에는 12개 광종 358개의 광업권이 설정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가행하고 있는 광업권은 전체 광업권의 65%에 해당하는 231개 광구로 금속광이 12개 광구, 비금속광이 202개 광구, 석탄광이 17개 광구이다.

광산물의 생산실적은 금 199.0kg, 은 6,426.0kg, 납석 283천 톤, 고령토 128천 톤, 석회석 950천 톤, 규석 289천 톤, 장석 70천 톤, 석탄 223천 톤으로 90년대 이후 매장량 감소와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 등으로 인한 신규 광산개발이 어려워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도 광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6년도 광업 현황 】

구 분	등록광구	가행광구	광 산 수	종업원수
계	358	231	48	727
금 속 광	39	12	2	84
비금속광	302	202	45	200
석 탄 광	17	17	1	443

전남도는 앞으로도 안정적 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도내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에너지산업과장 이권섭, 자원개발팀장 이경연, 담당자 손동식, 박희

4.4. 연구개발 기반 구축 및 산학연 협력 강화

가. 에너지 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SW융합클러스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W중심사회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전략산업에 SW를 접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유치했으며, 에너지 신산업과 SW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나주시, 한전, 한전KDN이 참여하여 2020년까지 320억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은 에너지 신산업·SW융합 연구개발 및 관련제품 상용화, 벤처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SW융합 인력양성, 혁신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전, 한전KDN,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기술개발 27건, 기술 및 제품 상용화 95건, 시제품 제작 83건 지원 등을 통해 212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SW관련 창업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으로 24개의 창업을 지원하고 취업연계 및 SW 저변확대 교육 등으로 1,204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SW융합 확산을 통한 성과창출을 도모할 계획으로 에너지ICT 관련 빅데이터의 제공·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기업들이 에너지 신산업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에너지 ICT기업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과학융합팀장 고영량, 담당자 박정희

나.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

지역인재의 창업지원과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여수시 덕충동에 2,978m², 지상 4층 규모로 2015년 6월 2일에 개소했다. 센터는 20개사 입주 공간과 교육장, 시제품 제작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벤처, 멘토 등이 장기간 체류하며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숙소(21개실), 운동시설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청년 창업과 서부권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서부권에 상담실을 설치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농수산 벤처 창업과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 관광지 육성 및 친환경 바이오 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남도 3명, GS 그룹에서 5명을 파견하여 센터 운영과 농수산 유통, 판로개척, 바이오화학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 내 농식품 벤처·창업지원센터가 별도 설치되어 농식품 분야 맞춤형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 법무, 금융, 판로(GS상담실) 전문인력이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382건의 멘토링을 진행했다. 개소 이후 국내·외 농수산 식품(K-Food) 판로 지원으로 132개 기업이 GS 유통망 및 농협 등 대형유통사에 입점하여 596.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광상품(K-Tour) 22개 상품도 GS홈쇼핑 및 전남알리고에 입점했다.

이밖에도 농수산 창업아카데미 300명, 농장실습제 283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했고, 바이오화학기업 지원,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하여 35개 기업을 육성했다. 지역 내 우수 인력양성을 위하여 '바이오화학 기술인 양성과정'등 취·창업 연계교육을 실시했으며, 663명의 취업 연계를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

투자 자금이 필요한 지역의 우수벤처 기업 및 중소기업에 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남도와 GS그룹에서 5개 펀드 1,432.5억원을 조성했으며, 농수산물식품 및 바이오화학 기업 육성을 위하여 147.8억원을 30개사에 투자했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 현황 : 1,432.5억원(전남도 870억, GS 400억, 기타 162.5억)

유형	펀드명	펀드 조성액	집행건수	집행액
투자	DTNI-전남창조 경제혁신펀드	115억(전남도 50, GS 홈쇼핑 50, 운용사 15)	5건	64.3억
	서울투자 창조경제 혁신펀드	50억(성장사다리펀드 50)	4건	25.1억
	SGI-GS칼텍스 전남바이오화학 투자펀드	157.5억(전남도 50, GS 칼텍스 100, 운용사 7.5)	-	-
	DTNI-AGRITECH 투자조합	120억(GS 리테일 30, 농식품모태 70, 운용사 20)	6건	50억
융자	친환경 농수산물펀드	920억(전남도 720, GS리테일 200)	2건	4.0억
보증	창조기술펀드	70억(전남도 50, GS 리테일 20)	13건	4.9억

민간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로는 포스코 광양창조경제센터가 2015년 8월 25일 개소되어 광양지역 부품·소재, 에너지·환경 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8일 한전(공기업 최초)에서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여 전남지역 에너지분야 예비창업자 및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과학융합팀장 고영량, 담당자 박강현

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1) 첫걸음 기술개발

첫걸음 기술개발은 정부 R&D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 장비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국비 50%, 도비 25%, 기업 25%)로 조성하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 등 사업비의 75%(연 1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4년 52과제 48억원, 2015년 48과제 51억원, 2016년 57과제 56억원 및 2017년 62과제 47억원을 투입, 지원하고 있다.

2) 지역 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작한 신규 사업이다.

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국비 50%, 도비 25%, 기업 25%)로 조성하여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 과제당 4.5억원을 지원한다.

2017년도에는 전남지역 특화산업 6개(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세라믹소재, 화학소재공정, 금속소재, 에너지저장) 분야에 9억원(국비 4.5, 도비 2.25, 기업 2.25)을 지원했다. 2018년에는 지역특화산업 28개 분야(4차 산업혁명 15, 중소기업 성장분야 13)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3) 산학협력사업 성과물 전시·발표회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매년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산학협력 기술개발 성과물을 전시하고 우수과제를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산학연 전남협의회 8개 대학교(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남대학교, 초당대)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하며, 2017년도에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산학협력 84개 품목 성과물을 전시하고 13개 우수과제를 발표했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산단산학지원팀장 최정운, 담당자 박재성

라.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한 차원 높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2억원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자하며, 향후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스타트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전략수립」,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기업의 연구조직을 육성하는 「연구개발 역량강화」, 기업보유 연구성과 또는 이전완료기술의 사업화를 돕는 「연구성과 사업화」 및 농어촌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25과제(전략수립 13, 역량강화 4, 사업화 8)에 21억원, 2016년 19과제(전략수립 4, 역량강화 5, 사업화 8, 중소조선 연구개발 2)에 17억원, 2017년 31과제(전략수립 6, 역량강화 12, 사업화 10, 농어

촌 문제 해결형 3)에 28억원을 지원했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산단산학지원팀장 최정운, 담당자 박재성

마.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라 2008년 전남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으로 추진된 과학기술진흥센터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 11월 개원했다.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50억원, 총 300억원을 투입하여 19,835㎡(6,000평) 부지에 11,531㎡(3,488평,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로 건립했으며,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입주 공간, 연구장비실, 기술교류실 등으로 구성했다.

센터는 전남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주도 R&D기획 지원, 지역연구개발 성과 조사·분석,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연구개발 통합 플랫폼 기능)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 주도 연구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기초원천 연구개발사업,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등 총 93건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여 신규고용 119명, 지재권 86건, 기술이전 15건, 사업화 49건, 학술실적 136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인력양성을 위해 신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41개사)을 실시했고, 기업부설연구소 협의회(70개사) 운영 및 기술교류를 지원했으며, 53개 과정의 연구인력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도내 기업 맞춤형 우수기술 이전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43건, R&D 연계 5개사(60억원), 투자유치 3개사의 실적을 창출했다.

전남 대표적 특화산업인 조선해양산업의 전담지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규고용 47명, 지역기업 매출 103억원 증대, 계약체결 16건, 수요처 발굴지원 131건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과학융합팀장 고영량, 담당자 박강현

바.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설립

인구 고령화와 웰빙 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천연의약품에 대한 관심 고조로 한의학 및 한방 치료기기의 고급화, 표준화가 시급하고, 전남의 생물산업과 한방산업 및 동신대 한의학과, 한방병원 등과 연계 융합을 통한 한의학 치료기술과 의료장비 개발로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동신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2012년 3월 체결하고,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전남센터를 유치했다.

이 사업은 동신대학교에서 전남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한약 시험재배지를 제공했고 총사업비 188억원(국비 110억원, 도비 41억원, 나주 시비 18억원, 한의학연구원 19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8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가 들어서면 연구 인력이 상주하면서 한의학 치료기술의 과학화와 한약 자원을 활용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역의 생물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한의약 자원을 발굴·보급하고, 재배기술 지원은 물론 광기술을 활용한 한방 의료기기 융합기술 개발, 한의약 자원 생산·가공기술의 현대화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어서 전남 생물의약 산업 발전에도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과학융합팀장 고영량, 담당자 박정희

사. IT융합 지역산업 기술개발 사업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은 전기통신, 정보처리, HW, SW, 통신망, 정보처리 등 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유무형의 기술이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반 기술로서, 경제·문화·의료·국방 등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우리 삶의 질 개선과 일상 생활의 편의 기술로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IT기술은 기존산업과 접목을 통해 끊임없이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있어 IT융합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전남도는 지역 성장동력산업과 IT 융합을 통해서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화,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지역SW품질역량 강화사업

SW는 에너지, 자동차, 제조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제품의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고, SW제품 결함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주므로 SW 품질이 제품 경쟁력에 결정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열악한 SW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속사업으로 GS(Good Software), SP(Software Process) 등 SW 품질인증 취득과 SW 품질 컨설팅 및 테스트, SW 품질관리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컨설팅 38개사, 테스트 86건, 인력양성 289

명, 인증취득 29건 등을 지원했으며 지역 SW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 지역 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열악한 지역의 SW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서비스 등 지역전략산업과 SW 융합으로 생산성, 서비스 고도화, 신시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3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 사업을 완료했다.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 생장 및 예찰 분석시스템 기반 버섯재배기술개발사업」은 버섯재배 시 병충해 예방 및 최적의 생장 관리 지원을 통해 고품질·고가의 버섯을 재배토록 지원하는 SW 융합제품이다.

「조선협력업체 의장품 제작정보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종이로 작성하는 설계도면을 자동화시킴으로써 협력업체의 공정기간을 줄여 기업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W 융합제품이다.

「조선소 생산성향상을 위한 안벽의장 공정관리시스템 개발사업」은 중·대형조선소 배 안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 위험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작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환경과 작업공정의 효율성을 보장해주는 SW 융합제품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창출 46명, 상용화 17건, 기술개발 30건, 특허출원 11건, 인증취득 3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3) 지역SW기업성장 지원사업

지역 SW 기업성장지원사업은 ICT·SW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통해 SW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2년부터 목포시에서 추진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역사업을 광역단위로 개편함에 따라 2017년부터 도에서 추진했다.

2017년 주요실적은 해외 시장 개척 및 신규 판로 확보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단 파견에 8개사를 지원하여 30만불 계약(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ICT 관련 중앙 정책방향 및 이슈 전달, 최신 ICT트렌드 공유, 정보제공 등으로 지역 ICT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4) 농식품 ICT 융합 고급인력양성 사업

전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구. IT 고급 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농식품 ICT 융합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 ICT 융합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은 대학센터와 기업이 연계하여 농식품 생산·유통 ICT 융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대학 연구인력을 R&D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순천대학교 농식품 ICT융합연구센터에서는 작물 생산 최적화 IT 융합기술 연구, 축산 IT 융합기술 연구, 농식품 유통 및 가공 IT 융합기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국내 대학(서울대, KAIST, 대구가톨릭대) 및 농식품 기업, ICT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적교류 및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48명의 석·박사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여했고 SW등록 98건, 특허출원 96건, 기술이전 33건, 사업화 7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과학융합팀장 고영량, 담당자 박정희, 정소망

아. 산학융합지구 조성·운영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R&D-인력 양성-고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1) 대불산학융합지구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 430억원을 투입했다. 2015년 9월에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기계해양시스템학과, 조선시스템학과 6개 학과 350명을 대불산단의 산학융합캠퍼스로 이전하고 근로자 평생학습,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역량강화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특성화고 선취업-후진학 과정(9개 고교 92명), 중소기업 계약학과(30개 기업 61명) 등 운영,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취업연계 R&D인턴십 운영(119개 기업 412명 참여),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산학공동연구개발 수행(특허 출원 37건) 등을 추진했다.

2) 여수산학융합지구

여수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 4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8년 말까지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연구관을 건축하고 2019년 초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화공안전

학과, 환경시스템공학과, 화학생명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플랜트 공학과 5개 학과 252명이 여수산단 내 산학융합캠퍼스로 이전한다.

3) 나주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나주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3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8년 말까지 산학융합캠퍼스 및 기업연구관을 건축하고 2019년 초에 목포대학교 전기및제어공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2개 학과 291명과 전남도립대학교 신재생에너지전기과, 정보통신과 2개 학과 88명이 나주혁신산단 내 산학융합캠퍼스로 이전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산단산학지원팀장 최정운, 담당자 김정주

자. 풀뿌리기업 육성

풀뿌리기업 육성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 산수유와 지리산권 약용자원을 활용한 전통산업 육성

전남한방산업진흥원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지리산권 특산자원인 산수유와 약용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담양·구례·곡성군, 구례군야생화연구소, 전남도립대, 생물방제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제품개발 6건, 특허 및 상표출원 7건, 기술이전 1건, 고용창출 14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 ICT·BT 융복합 고품질 다시마 산업화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고품질 다시마의 대량 생산과 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완도·강진·장흥군, 전남대, 전남해조류연구소가 참여하여 제품개발 5건, 특허출원 1건, 고용창출 2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천연염색신소재 R&D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고품질 타월 개발

동신대학교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했으며, 화순의 집적화된 타월업체와 나주의 전략산업인 천연염색·염료 기업을 연계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주시, 화순군, 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참여하여 제품개발 47, 특허 및 디자인 출원 13건, 고용창출 17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4) 산업안전용 고강도·고내식 패스너 산업화

순천대학교에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했으며, 철강, 화학 제조 등의 전략산업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등 기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순천시, 고흥군, (재)전남테크노파크, (주)죽암엠앤씨, (주)디엠티가 참여하여 지금까지 제품개발 19건, 특허출원 5건, 고용창출 4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5) 수산양식기자재 실용화 기술개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수산물 소비 증가, 양식어업에 대한 투자 확대, 어가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지역내 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양식 기자재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목포시, 영암·고흥·완도군, (재)전남테크노파크,

(주)디지털산업기전, 주영테크(주)가 참여하여 추진한다. 지금까지 제품개발 4건, 특허출원 12건, 고용창출 32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6) 패류(꼬막, 전복, 굴)를 이용한 수출지향형 제품개발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패류(꼬막, 전복, 굴)의 영세한 1차 가공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며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진·완도군, 완도바다식품, 청산바다참전복영어조합법인, 아이피알포럼(주)가 참여하여 추진한다. 지금까지 컨설팅 등 기업지원 47건, 특허 출원 7건, 고용창출 78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7) 헬스케어용 생활도자 개발 및 지역 도자산업 명품화

목포대학교에서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테이블 웨어 중심의 제품에서 벗어나 건강 보조용 생활자기 제품을 개발하고 명품화하여 도자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목포시, 무안·강진군, 강진문화관광재단 고려청자연구소, (주)에릭스, 맘키드크래프트, 테라세라믹, 토우가 참여하여 추진한다.

8) 나주 특산자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유발질환 예방 제품화

동신대학교에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나주 특산자원을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융합제품 개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조은영농조합법인, (주)건강을지키는사람들,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이 참여하여 추진한다.

참고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egionnal Innovation System)은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사업(목포대, 2013. 3.~2016. 2.), 녹색해양기자재 활성화 사업(목포해양대, 2013. 3.~2016. 2.), 전복산업 육성

사업(해양바이오연구원, 2013. 3.~2016. 2.), 장흥 친환경 해조류 명품화(목포대, 2014. 3.~2017. 2.), 전남 황칠 명품·명소 브랜드화 육성사업(천연자원연구원, 2014. 3.~2017. 2.),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및 미(美)산업화(순천대, 2014. 3.~2017. 2.)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개발 19건, 제품개발 16건, 창업 12개사, 특허 및 상표출원 25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산단산학지원팀장 최정운, 담당자 김정주

차.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지원

전남도는 지역전략 육성 분야 및 대학 특성화 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혁신센터(Regional Innov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장비활용(실험 측정 장비 구축·운영), 연구개발(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인력양성(산업체 인력 재교육), 창업지원(창업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판로 개척 지원) 지원 등이다.

1)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목포대학교에서 200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55억원을 투입하여 전남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원,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지역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주요성과는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 용접기량시험) 인증장비 등 74종 구축, 연구개발 75건, 특허출원 23건, 기술이

전 16건, 기술지도 120건, 워크숍 및 세미나 등 121건 등이다.

2)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 센터

순천대학교에서 2008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02억원을 투입하여 국내 자원 자립화에 파급효과가 큰 코발트(Co), 니켈(Ni), 티타늄(Ti) 등 희소금속의 용해·가공·분석 장비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 핵심기술 확보, 사업의 다각화 등을 위해 지역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추진실적은 연구개발 48건, 특허출원 137건, 기술이전 24건, 기술지도 498건, 6개 기업 창업 등이다.

3)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2009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광양만권의 중화학 산업의 설비 진단·보전 관련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 고가의 장비 및 진단평가 기술 지원, 설비보전 및 설비 엔지니어링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역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비 등 137억원을 지원했다.

추진실적은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장비 등 34종을 구축했고 특허출원 36건, 기술지도 172회, 기술이전 6건 등 중소기업 수요에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술 등을 지원했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산단산학지원팀장 최정운, 담당자 김정주

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전남도는 각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로 목포대, 동신대 2개 대학이 선정되어 321억원을 지원했다. 목포대는 156억원으로 해상풍력·신해양산업(바이오·수산·관광 등) 분야의 가족회사 지원(511개사), 기술지도(1,297건), 인력양성(4,712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신대는 사업비 165억원으로 문화관광, 생명바이오, 에너지 환경산업 분야의 가족회사 지원(653개사), 기술지도(926건), 인력양성(4,851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단계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로 동신대, 목포해양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4개 대학이 선정했으며 총 439억원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산단산학지원팀장 최정운, 담당자 박재성

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전남도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대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하여 공과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 목포대 공학교육혁신센터

목포대학교는 기계·신소재공학과 등 18개 학과 2,1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혁신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공학이론과 응용 및 실무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등 44억원을 지원한다.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연계 캡스톤 디자인 운영 지원, 특허 출원(17건), 현장실습, 현장밀착 실무교육, 기업 수요기반 공학 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융합 교육 프로그램, 융합신기술 예비창업자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ICT 융합인재 양성 교육, 지역특화 에너지 및 기계 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 동신대 공학교육혁신센터

동신대학교는 전기공학과 등 16개 학과 1,4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첨단 공학기술 및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등 51억원을 지원한다.

전공분야별로 요구되는 전문 기술력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캡스톤 디자인 정규 과정, 공학리더 프로그램, 글로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CAN 프로그램, 융합신기술 캠프 등 참가, 국제 과학기술경진대회 개최 등 경쟁력 있는 공학 교육 및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Tech+ 공학교육 혁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신산업 및 지역기업 수요에 맞는 특화형 인력양성과 글로벌 연계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기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산단산학지원팀장 최정운, 담당자 김정주

파. 전남 국방벤처센터 운영

도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국방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전남국방벤처센터’는 2015년 9월 순천 전남테크노파크에 문을 열고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소속 기관으로 도내 방산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 중 국방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 발굴 협약 체결 후 국방 관련 사업 컨설팅, 방위산업 기업과의 사업 협력,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28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경영 컨설팅 및 기술개발 자문 등을 통한 국방시장 진출로 지역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 전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현황 】

순번	협약업체	지역	협약일	주요 기술 및 생산품
1	(주)지오티	영암	'15.08.31	고속추진체계 제조
2	(주)티에이	순천	'15.08.31	텅스텐합금 재활용
3	케이에스광학(주)	순천	'15.08.31	우레탄렌즈 제조
4	(주)디엠티	순천	'15.08.31	신축이음관 제조
5	(주)썬테크	순천	'15.08.31	발전기, 전동기 제조
6	(주)승진유공압테크	순천	'15.08.31	실린더, 파워유니트 제조
7	(주)창바이오식품	담양	'15.08.31	식품 제조
8	(주)에이원엔지니어링	순천	'15.12.21	방폭제품, 건조기, 산업기계제조
9	(주)나라항공기술	영암	'15.12.21	산업용드론, 멀티콥터 제조
10	(주)대한선박기술	영암	'15.12.21	알루미늄 보트 제조
11	(주)서광	장성	'15.12.21	전자부품 압출 및 사출품 제조
12	(주)코일렉트로드	순천	'15.12.21	불용성 전극, 유-무기 코팅제 제조
13	(주)설텍	무안	'15.12.21	발전기, 전동기 제조
14	비피시(주)	순천	'15.12.21	티타늄기계부품, 철구조물 제조

15	살롱산업(주)	나주	'15.12.21	동결건조식품, 즉석식품 제조
16	(주)엠피넥스	순천	'16.05.13	LED탐조등
17	에스아이에스(주)	광양	'16.05.13	드론, 로봇시스템, 레이저가공기 등
18	(주)새한이엔씨	순천	'16.05.13	컨트롤러 및 소프트웨어
19	(주)와이제이씨	함평	'16.05.13	세라믹방탄판 및 정전폭탄
20	(주)지노스	영암	'16.05.13	함정용 소프트웨어
21	(주)승진엔지니어링	여수	'16.10.25	압력용기, 필터, 스트레이너, 가스켓
22	(주)웨이브쓰리디	담양	'16.10.25	무인항공기용 센서 등
23	(주)혜경 (주)유경	장성	'16.10.25	향온/향습 시스템, 건조기 등
24	(주)빛고을그린	나주	'17.01.18	야자매트, 경비매트 등
25	(주)코멤텍	영광	'17.01.18	PTFE 멤브레인, PTFE분리막 등
26	에스지티(주)	순천	'17.07.28	철구조물, 소각로, 농업용 난방기
27	해원엠에스씨(주)	순천	'17.07.28	접합강판, 제진강판, 칼라강판
28	(농)(주)승영F&B	담양	'17.12.20	즉석추어탕, 나물류 가공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산업정책팀장 조재웅, 담당자 곽주민

하.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 추진

전기산업은 국민경제상 필수 에너지인 전력의 공급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기기(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전선 등)를 생산하는 국가 중요산업인 동시에 전력 공급망 구축에 필수적인 자본재산업으로서, 2016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약 4,185억 달러, 국내 시장규모는 약 40.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2025년까지 세계 시장은 연평균 4.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도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 본사 이전을 기점으로 한전KDN, KPS,

전력거래소 등의 전력공기업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500여개의 에너지관련 기업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전략적으로 관련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산업분야에서 신기후체제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예비 시험설비를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전남 나주시 동수동 나주혁신산업단지 내에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부지 7,960㎡, 건축면적 4,200㎡,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 203억원 규모이며, 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각종 시험장비와 시험동 건축 등을 포함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곡성의 직류기기 성능시험 설비, 나주의 에너지 신기술인증센터에 이어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개발 시험부터 인증 시험까지 One-Stop 인증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기산업 4대 강국 실현에 전남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해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추진부서 ● 전략산업과장 김종갑, 신소재우주항공팀장 민일기, 담당자 이계명

5. 지역경제 활력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강화

5-1. 지역경제 활력 및 서민경제 안정 도모

가. 전남 경기종합지수 개발·운영

전남도는 국내의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 변동성 확대로 지역 경기의 흐름과 특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야별 경기지표와 우리 지역 경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종합지수를 개발해 2017년 7월부터 발표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동향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전국 10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2015년 6월부터 2년 동안 광전연, 고려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한국은행, 통계청 등 경제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지수 개발에 주력해 온 결과 2017년 5월에 통계청으로부터 최종 국가승인을 받았다.

※ 자체 경기지수 공표 : 10개소(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번에 개발한 경기동행 종합지수는 생산 및 투자, 고용, 소비 및 물가, 금융 및 통화, 무역 등 5개 분야로 나누고, 광공업 생산지수, 전력사용량,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실질수출 등 총 6개 세부지표를 숫자화한 지수와 분야별 인포그래픽으로 발표하고 있어 우리지역 경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경제총괄팀장 서이남, 담당자 오소면

나. 전남 경제포럼 운영

전남도는 2014년 11월 지역 경제주체 및 경제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의견교환을 통한 민·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7명의 상시위원으로 구성된 ‘전남경제포럼’을 창립했다.

포럼은 매 분기 지역순회 개최로 지역경제 현안 및 이슈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도지사 주재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지금까지 전남경제포럼을 9회 개최하면서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의 활로 모색 방안,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등 정책제안 96건을 발굴하여 도정에 반영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그중,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전남도 84만명) 전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기업애로 사항을 환경부와 산업부 건의,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 부각, 에너지산업으로의 업종전환,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전과 함께 개최한 점 등은 가시적인 성과로 꼽힌다.

2018년부터는 도내 경제 주체들이 모여 지역경제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제전문가 강의를 통한 신속·정확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제단체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제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포럼 개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산업 부문 변화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지역경제 정책개발의 썩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경제총괄팀장 서이남, 담당자 오소면

다.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운영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는 지역 기업들이 국내외 비즈니스 추

진 시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국내외 바이어 상담 및 마케팅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3년 5월 용산역에 문을 열었다.

비즈니스 라운지는 2017년까지, 올해 1월부터 5만6천663명이 이용했고, 2018년 1월부터 2월말까지 3,016명이 이용하는 등 개소 이후 (2013년 1,245명, 2014년 6,621명, 2015년 12,810명, 2016년 19,430명, 2017년 16,557명) 현재까지 총 5만9천679명이 방문하는 등 활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의 지역별 이용현황은 북구지역에서 4,028명이 이용했으며 다음으로 서구(3,568명), 광산구(2,103명), 동구(1,803명), 남구(862명) 순으로 이용했다.

전남지역의 지역별 이용현황은 나주 (9,725명), 무안(2,634명), 순천 (2,111명), 여수(1,548명), 목포(1,077명) 순이다.

2018년부터 비즈니스라운지 운영에 전북도가 공동참여함에 따라 비즈니스라운지 내부시설 및 이용약관을 정비하여 기업인들의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경제총괄팀장 서이남, 담당자 김혜경

라.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

1) 소비자 물가

소비자물가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481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분야별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외식비, 기타 개

인서비스요금 등 55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최소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시기도 연중 분산 조정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전남도 2017년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1% 상승했다.

【 연도별 소비자물가동향 】

(연평균,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남	3.3	4.5	2.0	1.4	1.0	0.0	0.9	2.1
전 국	2.9	4.0	2.2	1.3	1.3	0.7	1.0	1.9

2) 물가안정대책 추진

전남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명절, 하계휴가철,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안전 발생 시 공무원과 유관 기관·협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인이 참여하여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설·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 여름 휴가철 등 물가가 오를 시기에는 미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특별대책상황실을 道와 시군에 각각 설치하여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 체제를 구축했다.

도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가격 상승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을 물가 모니터 요

원(6명)으로 위촉했다. 모니터요원이 조사한 매주 114개 품목의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정보 제공 및 물가 안정을 유도해 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업소별·품목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금인상·인상우려가 있는 품목은 매월 1회씩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시·군정지, 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홍보책자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자체관리 서비스 품목 중 9개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지자체관리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업소방문 및 각종 교육·홍보 등을 활용,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자제토록 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시군별 실정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제 실시로 업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했다.

2011년부터 행정자치부와 전남도에서는 외식업과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서비스업소 중 저렴한 가격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해 오고 있다. 2015년 현재 도에는 353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3) 소비자 보호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 소비생활센터와 전국통합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소비자단체의 상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017년 실적 : 2,409건(정보제공 2,011, 피해구제 398)

또한, 고령사회에 진입에 따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순

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을 하고 있다.

- * 2017년 실적 : 151회(15,990명)
·고령자(51회/4,900명), 학생(50회/10,000명), 사업자(22회/110명),
이장단(28회/980명)

시기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라디오 고정코너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비생활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리플렛 등을 배포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2017년 실적 : 방송 49회, 리플렛 2종(2천부 배포), 사례집 1종(1천부),
캠페인 3회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경제총괄팀장 서이남, 담당자 천재정

5-2.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가. 유망 중소기업 육성

전남도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을 대상으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며, 도내에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한도 상향(15억원→20억원), 이자지원 우대(0.3%~0.5%)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혜택을 부여한다.

그 결과로 매년 유망 중소기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 지원 ⇒ 기업성장 ⇒ 고용창출 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 유망 중소기업 : '14) 326개, '15) 344개, '16) 330개, '17) 372개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중소기업육성팀장 강희상, 담당자 김지인

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전라남도과 전남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이들이 ‘전남형 강소기업’을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해 주는 프로젝트다.

‘전남형 강소기업’의 선정기준은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15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중 3년평균 매출액 증가율, 고용 증가율, R&D 투자 비율,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 비중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R&D 투자, 성장전략 수립, 마케팅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별로 2년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20개사)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총매출액은 1,372억원으로 전년대비 8.8%(110억원) 증가했고, 총 고용인원은 547명으로 9.2%(46명)증가, 수출은 334억원으로 53%(115억원)증가, R&D투자는 26.5억원으로 39.1%(7.4억원) 증가했고, 지식재산권도 50건을 출원·등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급신장하는 기업 성장의 표준모델이 됐다.

지금까지 2015~2016년에 20개사, 2017~2018년 20개사를 육성하고 2024년까지 100개 전남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중소기업육성팀장 강희상, 담당자 정해상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 자금의 성격 및 종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의 자금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운영자금과 공장 등 시설투자 시 2.4%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1) 운영자금

운영자금은 13개 시중은행의 재원으로 도와 은행간 협약을 체결하

여 은행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도는 대출금리의 연 1.6%~3.0% 이자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2) 시설자금

도와 시군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연도별 기금조성 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조 성 현 황			
	2014 까지	2015	2016	2017
계	16,073	362.5	377	822.1
도비	102	7	7	7
시군비	405	28	28	28
융자금(원금+이자)	6,139	318	334	380
차입금	5,184	-	-	400
기타(예금 이자 등)	4,243	9.5	8	7.1

2) 육성자금 지원실적

2014년에 972개 업체 1,422억원, 2015년에 1,469개 업체 2,296억원, 2016년에 1,463개 업체 2,565억원, 2017년에는 3,133개 업체 3,087억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했다.

【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6			2017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계	2,800	1,463	2,565	3,800	3,133	3,087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30	70	438	630	88	493
벤처기업 육성자금	60	9	22	50	6	18
중소유통 구조개선	10	4	2	20	15	14
경영안정자금	1,900	736	1829	2,200	770	1,648
소상공인 창업자금	200	585	203	300	916	305
소상공인특별경영안정		-	-	500	1,209	521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	100	59	71	100	129	88

【 연도별 이자지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조 성 현 황			
	2014	2015	2016	2017
이자지원금액	39.5	57.5	78.8	101.8
경영안정	33.6	50.7	68.6	81.5
소상공인(창업, 경영)	5.1	6	9.5	19.6
공제기금	0.8	0.8	0.7	0.7

* 이자지원은 은행 융자금 대출금리 중 이자 일부(1.9%~3.0%)를 지원하는 것임.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중소기업육성팀장 강희상, 담당자 김지인

라.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5년 11월에 50억원 규모의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조성 규모의 최소 80% 이상을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기업당 투자금액은 1회 2억원 이내, 횟수에 제한 없이 총 3억원까지 가능하다.

지역 내 창업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엔젤투자자가 직접 기업에 先투자하고 심사를 거쳐 투자금액의 최대 1.5배까지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타 시도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창업 여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설명회 개최, 엔젤 양성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전남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 현황 】

(단위 : 좌, 천원, %)

구 분	구성원	출자좌수	출자금액	지분율
계		5,000	5,000,000	100.0
업무집행조합원	한국벤처투자(주)	50	50,000	1.0
유한책임조합원	전라남도	1,000	1,000,000	20.0
특별조합원	한국모태펀드	3,950	3,950,000	79.0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벤처창업지원팀장 이길용, 담당자 이동명

마.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지원

전남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TV홈쇼핑, 인터넷 오픈마켓, 제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50여개 기업에 맞춤형 판로지원을 제공했다.

2017년 8월에는 광주·전남 여성벤처기업 제품박람회와 연계하여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해 47개 공공기관과 납품 상담의 기회를 제공

하고, 홈쇼핑(홈앤쇼핑, W쇼핑, 엠디글로벌넷 등) MD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갖는 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8년부터는 전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남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장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려고 도내 50여개 중소기업의 개별(국내)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판로 지원책들을 다양하게 개발·확대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중소기업육성팀장 강희상, 담당자 정혜진

바.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시행

전남도는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도내 25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제품(공사·용역·물품) 구매에 참여하고, 상반기 2회에 걸쳐 각 기관의 구매실적을 기관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정책 도입 첫해, 2015년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 1조9,529억 원 중 도내 제품은 1조4,549억을 차지(74.5%)했다. 이후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비중이 매년 확대되어 2017년에는 84.7% 실적을 달성해 전년대비 약 2,500억원의 도내 중소기업 매출확대를 가져왔다.

더 나아가 정책의 최종 목표인 2018년까지 구매실적을 86%를 달성하면 정책 시행 전보다 약 5,000억원의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온 이 제도가 기업매출확대 → 고용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도록 전방위적인 정책지원을 펴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중소기업육성팀장 강희상, 담당자 정혜진

사.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전남도는 2016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지역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역 상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융자지원, 특화상권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안착 및 경영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매년 약 150명의 청년 및 퇴직자 등의 창업희망자가 창업절차, 창업지원제도, 신제품 개발 등의 교육을 수료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1억원/업체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13년도에 3,022억원, 2014년도에 3,691억원, 2015년도에 4,477억원, 2016년도에는 4,585억원, 2017년도에는 5023억원을 신용보증 공급을 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 대규모점포(아웃렛)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대규모점포 입점에 따른 대응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도내 대규모점포(아웃렛) 입점 현황 】

구 분	규모(평)		주요 시설	개장
	부지	연면적		
광양 LF스퀘어	23,650	28,143	매장(286개), CGV극장	'17. 1. 6.
남악 롯데쇼핑센터	19,639	14,240	매장(172개), 롯데마트	'16. 12. 21.
남악 이마트 트레이더스몰	3,966	18,917	창고형 마트	'19. 상반기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소상공인팀장 황의철, 담당자 이상철, 양지우

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전남도는 2001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형마트·SSM,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산업의 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 유통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2017년도 지원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 22개소 총 295억원, 경영현대화 사업 19개소 17억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10개소 39억원 등을 지원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주차장 설치, 시장 재건축, 아케이드 설치, 스프링쿨러 설치 등 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했고,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청년상인창업지원사업, 청년몰조성사업, 상인조직역량강화 등을 추진했다.

특성화시장 육성은 전통시장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이용객 증대를 목적으로 도 자체사업인 문화예술융합형시장,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특성화시장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계	298	356,923	261	12,557	34	17,851
2001	2	7,543	-	-	-	-

2002	6	10,583	-	-	-	-
2003	18	16,595	4	119	-	-
2004	22	32,196	3	132	-	-
2005	18	8,447	2	524	-	-
2006	16	10,305	8	350	-	-
2007	17	15,382	16	2,082	-	-
2008	25	32,947	12	685	-	-
2009	24	21,725	13	1,854	1	1,667
2010	26	22,310	47	2,269	1	914
2011	13	23,252	31	465	-	-
2012	15	27,560	19	372	2	2,400
2013	18	27,157	19	266	2	1,050
2014	16	25,258	30	466	1	400
2015	21	28,542	19	382	7	3,500
2016	19	17,567	19	891	10	4,020
2017	22	29,554	19	1,700	10	3,900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소상공인팀장 황의철, 담당자 이병국

자. 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남도는 위기의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기관으

로 선정해 2018년 7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전남 자영업종합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과 입점지역 상권분석 및 컨설팅으로 과밀업종은 제한하고,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 대해 유관 기관과 협업해 경영컨설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인력난 해소 등을 돕는다. 또한, 자영업자의 폐업손실 최소화 지원과 일자리 제공, 재창업 지원 등으로 한 두 번의 실패가 인생 전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고 재기의 자양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내 자영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는 일자리가 줄어들자 실버·청년층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도내 자영업자 중 5년도 못버티고 폐업하는 비율이 70%가 넘는게 현실이다. 초기 경험 부족 등으로 폐업자가 양산되면서 가계부담 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비용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서는 그동안 창업에 필요한 사전준비와 창업초기에 발생되는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적인 자영업 지원시스템이 없어서 이번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구축은 자영업자의 창업과 경영 전반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업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소상공인팀장 황의철, 담당자 이상철

5-3. 금융 취약계층 자립 지원

가.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추진

전남도에서는 생계형 채무자들의 빚 소각 행사를 개최했다. 도는 2017년 2회에 걸쳐서 시장 상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주부 등 생계형 채무자 1,233명의 빚 188억원을 소각했다. 도는 주빌리은행과 협약(2016. 2.)을 맺고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했다.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는 생계형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온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소각 대상이 되는 채권은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로 파산·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갚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 가운데 소멸시효(5년)가 완성됐거나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결손 처리한 부실채권이다. 이로써 전남도민 1,233명은 그동안 뒤따라 다니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게 됐다.

채무소각은 건강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 각계 인사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행 금융대출의 부조리를 합리적 목적성에 기초한 행정의 선의로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도 사회통합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소모성 복지예산과는 달리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는 생산성 지출이라는 장점도 크다.



【제1회 소각식 ('17.4.6.)】



【제2회 소각식 ('17.12.28.)】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소상공인팀장 황의철, 담당자 이병국

나.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16년 5월 전남신용보증재단(순천)과 전남중소기업진흥원(무안)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상담센터가 문을 연 것은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이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다채무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금융구제방안과 법적절차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했다. 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 금융, 재무, 복지 등 여러 기관에서 직접 방문해 받아야 했던 상담을 이제는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센터는 서부권과 동부권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재무컨설팅, 채무조정 상담, 복지지원 연계, 채무조정 대행 등 연간 4,500여건 이상의 상담을 목표로 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금융과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교육도 병행 중이다.

전남도는 현재 2개소로 운영 중인 센터를 22개 시·군으로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소상공인팀장 황의철, 담당자 이상철

다. 서민 대출금리 인하 추진

전남도와 신한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전남도와 신한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2015.12.)을 체결, 고리채 해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협약에는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일일수납대출(일명 일수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한이 일수대출에 대해 100% 특별보증하고, 신한중앙회는 전남도에 소재한 일수대출 금리를 평균 14.8%에서 5.9% 이내로 인하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서민 금융 지원 시책이다. 전남도가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급하는 일수대출 특별보증 규모는 100억원이다. 영세 소상공인 1인당 보증한도 3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이내 범위에서 일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신한 일수대출을 이용하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이 연간 5억여 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일수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소상공인팀장 황의철, 담당자 이상철

5-4. 신뢰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가.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활성화

1) 산업평화 정착 분위기 확산

전남 지역은 그동안 언론, 영화 등에서 ‘전라도는 투쟁을 잘하는 지역’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만들어 ‘기업하기 힘든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실제로 노사분규가 많지 않다.



(2016년 기준 노사분규 전국 대비 0.5%)

전라남도는 이러한 잘못된 편견이 전남으로의 투자를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노동자와 기업가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 선언」을 하고 있다. 노동자와 기업가 대표가 한곳에 모여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분배의 과실을 함께 나누자는 선언으로 2017년에는 5월 20일에 화순군 모후산에서 전남 노사대표자 700여 명이 모여 산업 평화 선언 행사를 열었다.



2)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전라남도는 매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9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2.7백만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45.4백만원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사업은 전라남도 공동주택 노동자 처

우개선 사업,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 운영,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근로개선 협약체결 등으로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전남경영자총협회 등이 참여했다.

3)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는 국비지원사업 외에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496.4백만원의 예산으로 14건의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사업은 노동자 특별 순회 교육, 고용안정 특별활동반 운영, 비정규직 노동자 문화제와 차별해소 토론회 개최 등이며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민주노총 전라남도본부 등 단체가 함께 추진했다.

4)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시상

전라남도는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이룬 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산업평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매년 3~4명의 기업 또는 노동조합을 선정하여 수여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51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2017년에는 순천에 소재한 한국신광마이크로에트로닉스(주)(대표 간바야시 히로미찌)가 산업평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 기업은 최근 중국산 저가 공략에 밀려 가격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조정 없이 노사가 함께 고통분담을 하며 품질경쟁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5) 전국 최초 10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라남도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노사상생의 문화를 이루는 노력을 지속한 결과, 고용노동부 주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10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노사화합이 가장 잘 되는 곳'으로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노사협력팀장 이인수, 담당자 이은철

나. 전남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

전남도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210천명(2017년 8월 기준)의 권리 보호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2013년 10월 1일 개소)

1)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 및 무료법률(구제) 지원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신고센터' 및 '최저임금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임금, 고용, 근무조건 등 연간 600여건의 비정규직 차별 민원을 상담했다.

이 중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 노무사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진정서 접수 등 무료 법률 구제절차를 진행해 50건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았다.

2) 사업장 방문 상담·컨설팅 및 생활임금 실태조사 추진

전남도는 '노동법률 교육', '노동자 방문상담 컨설팅' 사업 추진으로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근무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16년에 도입된 생활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실태를 조사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도, 직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7.6%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생활임금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해 생활임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3) 공공주택 노동자 처우개선 협약 체결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대적 고용불안과 장시간 근무 등 근로환경이 취약한 공동주택 노동자(경비원, 미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106개 아파트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했다. 이에 4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노동자 처우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주택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보호 방안을 고용주인 입주민이 스스로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분담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 실태 및 차별요소·고충사항을 조사하여 중장기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 현황 】

(단위 : 건)

연도	계	상 담				법률지원	사업장 컨설팅	홍보 및 교육
		임금	해고	근로 조건	차별 시정 등			
2014	510	235	38	83	154	12	54	6/337
2015	573	231	62	144	136	11	50	10/698
2016	610	204	80	129	197	10	72	16/413
2017	669	228	104	151	186	17	73	15/458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노사협력팀장 이인수, 담당자 한진우

다. 전남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도 내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을 제정(2015년 12월)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2016년 8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분위기 확산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소년 스스로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사업장과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총 925개 사업장, 약 5,000명에게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주휴수당 지급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호자 동의서 미제출 등의 위반사업장 15개소를 적발·시정 조치했다.

2) 청소년 노동자 상담전화 운영 및 법률지원

청소년 노동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월평균 50여건을 상담하고 30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는 구제활동과 고용노동청 진정서 제출 등 법률행위를 지원했다.

또한, 노동인권 에 대한 교육기회가 적은 도서지역 청소년 및 아르바이트 경험이 50%가 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4회에 걸쳐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구제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교육청,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중소기업과장 박종필, 노사협력팀장 이인수, 담당자 한진우

5-5. 국제 우호·협력강화 및 수출증대

가. 국제교류 다변화 및 우호·협력강화

21세기 들어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 속에 국가 외교뿐 아니라 지방외교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국제사회에서 전남의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 1986년부터 미국 미주리주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미·일·중 3개국 7개 지역과 자매결연, 13개국 26개 지역과 우호교류 협력을 맺어 지금까지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선6기에는 일본 고치현(2016.10)과 미국 메릴랜드 주(2017.9), 중국 산시성(2017.11)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농수산업 6차산업화, 산림, 환경, 문화·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전개했다.

미국 메릴랜드주와는 해양환경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국의 산시성과는 전남 쌀 수출과 에너지 분야와 통합의학 관련 교류를 진행했다.

또한, 일본 고치현은 전남도 목포 공생원 창립자 윤학자 여사와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행정, 의회, 농수산 6차 산업화, 산림,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

과거의 국제교류가 미·일·중 교류에 편중된 국제교류였다면 민선6기에는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인도, 미얀마 등 더 많은 국가와 다양한 협력 사업을 모색해 전남도의 외교 영역을 넓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중동과 중남미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확대하고, 도민 소득향상을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관광객 유치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 외국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현황 】

구 분	자 치 단 체 명	체결일자	
자매결연 (7)	미 국 미주리주 오리건주 메릴랜드주	1986. 09. 24 1996. 10. 16 2017. 09. 05	
	중 국 저장성(浙江省) 장시성(江西省) 산시성(山西省)	1998. 05. 16 2012. 04. 17 2017. 11. 24	
	일 본 고치현(高知縣)	2016. 10. 31	
	우호교류 (26)	미 국 애리조나주 버지니아주	2007. 11. 19 2016. 02. 24
		중 국 상하이시(上海市) 장 쑤 성(江蘇省) 산 동 성(山東省) 후 난 성(湖南省) 쓰 환 성(四川省) 푸 쟈 성(福建省) 충 칭 시(重慶市)	1996. 04. 19 1996. 04. 23 1996. 04. 25 1997. 06. 21 2004. 04. 26 2007. 10. 11 2008. 09. 03
		일 본 후쿠오카현(福岡縣) 사 가 현(佐賀縣) 나가사키현(長崎縣) 야마구치현(山口縣)	1992. 08. 25 1992. 08. 25 1992. 08. 25 1998. 09. 02
독 일 브레멘주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주		1996. 10. 28 2004. 11. 30	
필 리 핀 리잘주		1997. 05. 07	
말레이시아 케다주		1997. 05. 10	
베 트 남 바리아봉타우성 껀더시		1997. 05. 12 2012. 12. 04	
태 국 라용도		1999. 08. 27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중부술라웨시주		2001. 04. 26 2009. 09. 29	
콜 롬 비 아 보야카주		2001. 05. 11	
체코공화국 모라비아-실레시아주		2001. 12. 04	
러 시 아 노보시비르스크주		2005. 09. 28	
키르기스스탄 추이주		2007. 11. 19	

추진부서 ● 국제협력관 신경일, 국제교류담당 김송원, 담당자 김수미

나. 도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남도는 민선6기 동안 도민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자력 수출역량 강화, 수출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수출 지원시책을 추진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악화된 통상환경 속에서도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연평균 약 320억 불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수출액의 취업유발지수*를 감안할 때 민선6기 4년간 총 993,249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양한 것이다.(출처 : 무역협회)

* 수출액 100만 불 당 취업인원 : 2014년(7.17명), 2015년(7.99명),
2016년(8.22명), 2017년(7.79명)

전남도는 민선6기 동안 중국·일본 등 일부 국가 쏠림현상이 두드러져 외부 변수에 허약한 수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중동)와 동남아시아는 물론 중·남미까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연 2~3회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은 감소했으나(감소율 △13.5) 전체 농수산물 수출액(2017년)은 3.4억 불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효과적인 수출지원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수출 500억 불 달성과 일자리 40만 개를 창출하고, 수출 증대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 궁극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수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국제협력관 신경일, 국제교류담당 김송원, 담당자 박철영

다. FTA 대응 종합대책 추진

FTA 피해산업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혜산업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FTA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1) 전라남도 FTA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제, 농업, 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를 위원(25명)으로 위촉, 각 분야별로 FTA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도에서 수립한 FTA 대응 종합대책을 심의 조정하고, 도 차원의 FTA 대책을 발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전남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FTA 활용지원센터는 FTA 대응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이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내에 2011년 11월에 개소하여 현재 한국무역협회에서 파견된 관세사·원산지관리사 2명이 상주근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취득 지원 등 FTA와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추진부서 ●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경제총괄팀장 서이남, 담당자 김경연, 김혜경

